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기다립니다



- × [이달의 인물] 2019년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를 만나다
- × [청소년뉴스] 청소년을 미성숙 해서 안돼...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논란
LG,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 1만대 지원
청소년들 청와대 앞 '스쿨 미투' 1년...학교 바뀔게 없어
- × [학교소식] 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출
경남교육청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전주기공 중등창의 후배 사랑 전하다
전주교 비봉갤러리 개관식 열려
- × [맛강년맛반] 수교했어~ 집양고 1학년5반편
- × [맛강년맛반-산청] 2018 선명여고 1학년7반편
- × [필통법익실] 아리아나그란데의 'thank u, next'
- × [19금 파헤치기] 방승심약규정, 얼마나 알고 있나요?
- × [필통실함실] 씨네티니? 허들레너
- × [전주 역사투어] 전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극본이 있다는데
- × [글로벌미팅] 경상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응원터푸능을 만나다
- × [필통뮤직차트] 청소년 평점 본느레 CHART
- × [동아리탐방] 전주교 수학동아리 수나누미

- × [체험 리얼함정] 알바로 능력이지? 그전에 알아야지
- × [I'M FASHION PEOPLE] 쿠하나(삼현여고 1학년)
- × [SNS 맛집 검증] 전주가 원조인 벌미, 땡초김밥
- × [JOB을 잡아라] 아트빈 커피 윤상규 바리스타를 만나다
- × [씨네티니]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 1989)
- × [기교] 인원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 × [이슈] 학생인권조례 너머 더 중요한 것들?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찾아서
- × [취재수첩] 영어 자막은 있는데 한국어 자막은 왜?
학교폭력은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된다고?
학교내 무상으로 생리대 비치해 의무화해야...
'인싸'가 아니어도 괜찮아!
3.1운동 100주년, 여전히 학교에는 일제 잔재
누구인가, 누가 내 쉬는 시간을 가져갔는가?
- × [필통우치롱] 독저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3월호 문제

세월호 5주기 추모 문화제

“세월호 다섯번째 봄,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의미 있는 공연과 이그나이트의 울림이 함께 합니다.

2019년 4월13일 토요일 저녁 7시
진주시교육지원청 광장(우천시 교육청 2층 강당)
주최 :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2019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2019년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를 만나다

〈2019년 필통의 학생기자 대표와 부대표를 맡게된
곽병규(왼쪽), 장은령(오른쪽)기자〉

저희 '필통'은 진주 청소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Q1.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병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필통 대표를 맡게 된 진주고등학교 2학년 곽병규입니다.
A. 은령) 반갑습니다! 저는 부대표를 맡게 된 진양고등학교 2학년 장은령입니다.

Q2. 필통에 지원했던 이유, 혹은 계기가 있나요?

A. 병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진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필통 신문을 봤거든요. 진주에서만 볼 수 있는 청소년이 직접 만든 신문이란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멋있게 느껴졌고, 제 진로희망도 언론 분야라서 지원했었어요.

A. 은령) 저도 중학생 때 필통을 친구들과 보면서 '나도 기자단 활동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 마감 며칠 전에 친구와 함께 지원하고 활동하게 되었어요.

Q3. 대표, 부대표가 생각하는 필통만의 장점, 매력은?

A. 병규) 아무래도 보통 학생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직업인이나 대학생, 외국인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다른 학교의 기자들과 교류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글이 실제로 신문에 나올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이지요.

A. 은령) 우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친구들,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이랑도 어울리니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Q4. 가장 인상 깊었던 필통 활동은?

A. 병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역시 필통 M.T긴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에 '필통 실험실' 코너에서 햄버거 브랜드 비

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사를 쓰기 위해 한 번에 햄버거 5개를 먹었던 거죠.

A. 은령) 뭐니 뭐니해도 필통 M.T가 가장 인상 깊어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서 도착지를 알아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조원들과 돈독해 지고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고등학교 시절 재미난 추억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Q5. 필통 활동이 힘들 때는 없나요?

A. 병규) 글썄요. 굳이 하나 뽑자면 매달 개인 기사를 1편씩을 꼭 써야 되는 것이 스트레스 이긴 하죠. 기사 아이템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필통기자 친구가 있다면 괜찮은 기사 아이템을 많이 제보해 주세요!

A. 은령) 아무래도 기사 마감하는 것이 저는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가끔 할 일을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책임감 있는 열정적인 모습을 가진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Q6. 필통이 스스로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면?

A. 병규) 개인적으로 굉장한 소속감을 느껴요. 그런 기분이 좋습니다. ㅎㅎ

A. 은령) 필통에서 활동하면서 제 스스로 바뀐 게 많다고 느껴요.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필통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가 많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Q7. 대표, 부대표에 나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병규) 사실 필통 기자가 됐다는 것도 특별한 경험인데, 대표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2학년이 되니까 학업 부분이랑 병행하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는데 선배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A. 은령) 작년 대표, 부대표였던 오빠들을 보



필통기자단 활동

필통학생기자단은 (사)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청소년들의 매체라 할 수 있는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자활동을 한다. 또한 청소년 팟캐스트 방송인 '필통 팟캐스트'도 직접 제작 방송하며 교육청등과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 멘토 스쿨'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관련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다.

필통기자는 진주지역 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다. 향후 중학생기자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년 방학때면 공식적인 학생기자모집을 진행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개별면접을 거쳐 10~12명 정도의 신입기자를 선발한다. 신입기자들과 활동중인 기자들은 '기자학교' '기자단 수련회'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매년 25~30명의 학생기자들이 활동하게 된다. 물론 자퇴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필통기자단의 문은 열려 있다.

필통학생기자단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겨울방학때면 '기자단 수련회'에서 학생기자단을 이끌어 갈 기자대표와 부대표를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는 신입기자, 현역기자뿐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한 필통 출신의 선배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되고 후보들의 각오와 다짐을 듣고 한 해 필통을 이끌어 갈 자신들의 리더를 뽑게 된다.

사진으로 보는 필통기자단 활동



[취재/ 권수민(진주여고2)기자]

청소년은 미성숙 해서 안돼...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논란

울산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을 두고 3개월 이상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관련 공청회는 어른들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3월15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시민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한 '모두 모여 토론해봅시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200여 명이 항의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울산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울산시의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의도에 서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참여 활동을 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사업, 예산 반영, 입법제안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의원은 임기 2년에 25명으로 구성되며, 울산시장은 청소년 의회 활동을 위해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운영



에 필요한 경비, 교육과 견학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반대측은 이러한 청소년의회 조례가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의회 조례는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 습득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려했다. 또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시의회 행사에 청소년과 교사를 동원시키는 것은 학습권 침해이자 근무시간 이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시민들은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에서 청소년 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유엔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보수성향의 어른들이 '정치색'을 덧씌워 미래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들 청와대 앞 스쿨 미투1년 학교 바뀌게 없어

지난해 '스쿨 미투'를 외쳤던 청소년들이 새 학기를 앞두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9개 청소년·여성인권단체는 3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당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3월이면 학생들은 다시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폐쇄적인 학교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쿨 미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해 교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피해 학생들은 학교와 온라인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21일 정부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인권



법 제정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 ▲스쿨미투 사건 적극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만간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이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은 손 씻기만? 휴대전화 소독도 꼭

청소년들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10대 가운데 2대꼴로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은 3월11일 청소년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청소년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조사했더니 10대 가운데 2대꼴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휴대전화 오염 조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6학년, 중·고교생 휴대전화 116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등 식중독 원인균이 각각 17건과 20건 검출됐다. 그러나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시 보건환경연



구원은 황색포도상구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흔하게 손에 묻어있는 세균으로, 정상면역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 1만대 지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엘지(LG)가 전국 초·중·고교에 엘지전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대와 엘지유플러스의 사물인터넷(IoT)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와 인공지능(AI)스피커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약 150억원에 이른다. 엘지 측은 최근 이를 결정하고, 3월12일 권영수 부회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지원 품목인 엘지 대용량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는 초등학교 교실 면적의 약 1.5배 이상인 최대 100㎡의 넓은 공간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또 엘지유플러스의 사물인터넷(IoT)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환기가 필요할 경우 알람을 보내고, 인공지능(AI)스피커를 통해 공기청정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엘지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기청정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엘지전자 창원공장의 생산라인을 최대한 추가 가동해 지원용 공기청정기 1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27만2728개 교실 중 41.9%인 11만4265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생은 페메 데이터 공짜 제로레이팅 경쟁 심화될까

SK텔레콤을 쓰는 청소년 이용자들은 앞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할 때 데이터가 차감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3월5일 "10대 중고생(2001년~2006년생) 고객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대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 대신 콘텐츠 제작사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요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로레이팅 혜택을 받고 싶은 10대 이용자들은 SK텔레콤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10대 전용 제로레이팅 서비스인 '데이터 슈퍼패스'를 신청하면 된다. 단 페이스북 메신저 내에 음성·영상 통화 기능을 사용할 때는 제로레이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데이터가 차감된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서 제로레이팅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번에 페이스북 메신저에도 제로레이팅 혜택을 적용하면서 10대 이용자들이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게임 13개, 교육 4개, 커뮤니티 4개 등 총 23개로 늘어났다.

진주시 고교 학생회장 연대모임 "진달래"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4기째를 맞고 있는 진달래는 진주시의 각 고등학교 학생회장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각 학교 학생들의 소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교 학생회장들의 연대모임입니다.
저는 올해 진달래의 대표를 맡은 경남체고 33대 회장 장성호라고 합니다. '진달래'는

'진주의 달라진 내일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진달래는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조직의 구성이나 활동이 늦어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주시 고교 학생회장 연대 모임이 있음에도 아직 '진달래'의 존재를 모르는 진주시내의 학교 회장이 많고 아직도 가입되지 않은 학교가 더 많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진달래 회원수는 12명으로(경남체육고, 경남과학고, 명신고, 경해여고, 진주고, 진서고, 사대부고, 진주기계공고, 선명여고, 동명고, 대아고, 경진고)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대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칙과 조직을 재개편하여 연대장의 총 6개부서로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되지 않은 학교와 학생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진달래 연대장 장성호
010-3845-8710)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출

진주시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3월18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입학 당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진주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전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30만원이며 다른 곳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진주시는 해당 조례안이 회의를 통과하면 추경(4월)을 통해 19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늦어도 5월말까지는 올해 중·고



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교복구입비 30만원을 보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6300~6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진주기공, 총동창회 후배 사랑 전하다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후배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장학금을 모교에 기부했다. 3월5일 진주기계공고에 따르면, 진주기공 총동창회는 지난 1월 11일과 3월 4일에 열린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후배들에게 125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진주기공 총동창회 장학회는 2019학년도 전체 수석 성적 입학생에게 100만원, 학과별 우수 성적 입학생 8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해 총 500만원, 2018학년도 졸업생 9명에게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하만진 동문(21회)은 기능 영재 학생과 펜싱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300만원 상당의 장학물품을



기부했다. 총동창회 장학회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교사상'을 제정해 행운의 열쇠를 지급하는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신 신뢰도 높인다. 경남 전 중·고교 평가관리실 CCTV 설치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450여곳의 평가관리실(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공간) 입구에 CCTV를 설치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중·고등학교 내신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CCTV 설치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전까지 마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1곳당 예산 100만원가량을 지원하고, 기존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보강 등을 하도록 했다. 다만, CCTV 설치 장소가 평가관리실 내부가 아닌 입구인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평가관리실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를 보관하는



캐비닛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평가관리실에 보관된 시험 문제 등은 반드시 책임자 입회하에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지 인쇄 기간에는 인쇄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문제 촬영 등을 막기 위해 인쇄실 출입 시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한다.

경상사대부교 한·몽 청소년 문화 교류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월23~24일 경상대학교에서 진행한 한·몽골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 양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몽골 현지 6개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초청됐다. 한국과 몽골의 역사와 문화 배우기, 한국어 및 몽골어 수업, 한·몽 전통 노래 배우기 등 전통 문화 관련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주 진양고 일본문화 체험활동 실시

진주 진양고등학교는 지난 1월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1, 2학년 18명과 인솔교사가 함께 일본 오사카 일대로 해외 문화 체험활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문화 체험활동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문화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견문을 넓히고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알기 위해 대학을 방문하고 일본 고등학교 영어수업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토대학의 한국유학생의 안내로 대학캠퍼스를 돌아보며 진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에는 아카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영어시간에 모둠별로 '세계의 다른 문화'라는 주제로 서로의 문화를 영어로 소개한 뒤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과학고 체험·교과지식 견문의 장 마련

경남과학고등학교는 지난 3월9일 학교 수화실, 과학실험실 및 R&E실에서 '과학 꿈 키움 체험학습 지식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밝

경남도교육청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급식 질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급식 개선에 나선다. 전년도 추진한 경상남도 통합교육행정 첫 결실인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학생수, 학교급별에 따라 인상폭이 다르지만 식재료비가 전체 평균 500원이 인상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추진하게 된다. 인상된 식품비는 물가인상 반영과 Non-GMO 양념류,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매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고, 비봉갤러리 개관식 열려

2019년 3월 13일 '비봉갤러리' 개관식 행사가 진주고 2층에서 이었다. 진주고등학교 교직원, 학부모회, 동창회,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비봉갤러리'는 본교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본관 2층 복도에 개관하였다. 이에 뜻있는 동문들의 작품을 의뢰하여 기증 받았다고 한다. 47회 동문 '전호환'님의 서예작품, 49회 동문 '황용태'님의 수묵담채화작품, 68회동문 '김석진'님의 사진 작품을 비롯한 한국미술작품과 서양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에나·배끼, 사라지는 진주의 말

'에나(참, 진짜)·단디(확실하게)·배끼(공연히)·보도시(겨우, 빼듯이)' 등 진주지역 대표적인 지역어가 급격히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 국어국문학과 박용식 교수는 2월18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실에서 '지역어 기초조사 및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 네트워크 사업-인문사회 분야 소셜랩' 사업의 하나로 진행했다. 박 교수와 연구원 4명이 지난 해 11월부터 3개월간 지역 초·중·고·대학생·성인 등 302명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 '에나'는 초등학교와 중학생 각각 10%·20% 미만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고등학생·대학생·성인은 모두 30%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단디'는 전 연령층에서 40%가량이 사용한다고 했다. '배끼'와 '보도시'는 초·중·고교생은 거의 안 쓰고 (10% 미만), 대학생과 성인도 쓴다고 대답



한 경우가 20%를 넘지 않았다. '어디 가노?(많이) 무었나?'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대학생과 성인은 그 다음 순이었다. 대신 '어디 가?', '(많이) 먹었어?'라는 표현을 전 계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진주중학교 심경한 교장을 지목했다.

진주 경해여중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사랑 펼쳐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진주 경해여중 전교학생회에서 학교 자선행사 기금 및 축제 수익금 121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소식이 전해졌다. 경해여자중학교 전교학생회는 지난 1월22일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전교학생회 주관 자선행사 기금 및 학교 축제 수익금 121만1720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특히 경해여중은 지난 2015년부터 평거복지관에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매년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큰 기쁨을 주고 있다. 한편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평거복지관 내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심낙섭 진주교육장 플라스틱 사용 줄여요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심낙섭 교육장이 지난 3월15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챌린지'에 동참했다. 심낙섭 교육장은 정대균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SNS계정을 통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참여 '인증샷'과 동영상 올렸다. 진주교육지원청은 각 연수실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심 교육장은 다음 참여자로 진주초등학교 박상미 교

경남 보수단체,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전면 폐기 촉구

경남교육청 "흔들림 없이 추진"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반대 측이 수정안도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등 87개 단체는 3월1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집수한 의견 9000여 건을 반영했다는 도민 의견을 공개하라"며 "8천839건의 도민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불통이다"고 완전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3조 2항(적용범위)', '16조(차별의 금지)', '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를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전혀 수정이나 삭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와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이를 시행할 TF를 구성할 것을 경남도의회에 요구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의 작권남용 형사고발과 주민소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경남도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학교 현장과 도민의 의견을 충

실하게 반영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을 거쳤으며 조례의 모든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민의 전체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다"며 "공청회장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행정질차법에 의한 합법적 진행을 방해해 온 일부 반대단체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합법적 절차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퇴행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엄중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학생의 절반 이상이 생활하는 곳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공간에서 재학 중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잊지 않고 조례 제정을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3월 중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4월 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너머 더 중요한 것들?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기막힌 학교 현실과 학생들의 삶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아직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보수단체나 기독교단체들이 가장 앞장서고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더욱 약화되고 침해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로 맞서서 싸울 일인지, 또한 그 조례 하나가 생겨남으로 해서 과연 실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지금의 우리 학교는 어떠한가? 학생과 교사들은 목표와 열정이 없고 교실에선 엎드려 잠자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뉴스가 주기적으로 흘러나오고 학교폭력으로 입시부담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에선 교사들의 교내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학생들 사이에선 스쿨미투 운동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교육제도는 갈팡질팡 언제나 헛발질이고 학생들은 여전히 야간자율학습과 입시학원으로 떠돌아다닌다. 공부 때문이든 휴대폰 때문이든 학생들은 잠 못들고 세계 최고 수면부족 청소년들로 넘쳐난다.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기막힌 우리의 학교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다고 학생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리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말도 맞고 그것이 현실과 배치되어 부작용만 확대되는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쩌면 학생인권조례 그 너머에 있을지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학생들이 대체 무슨 잘못인가? 이다. 지금의 뜨거운 감자를 삼킨 듯 답답한 학교 현실은 학생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그런 학교를 원했고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온 국민들을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학생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던 과거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학생인권조례라는 결과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맞다.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수준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당위가 또한 현실을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를 완벽한 바이블처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 또한 무모한 아집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며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명확한 지점은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다.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 역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일그러지게 하는 소지가 있다면 그 역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것 역시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다고 과연 무엇이 그리 바뀌겠는가? 몇몇 학교 현장에서 잡음이 있고 뉴스 꺼리가 만들어지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부디 학교인권조례가 지금의 일그러진 대한민국 교육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방향과 같이 하길 바랄 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찬반에 보이는 관심과 행동들이 반드시 향해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시대와 동떨어져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학교와 그 속에서 힘겨워 하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그 끝일 수 없다.

[필통편집국]

[기고]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때리지 마라 소리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작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 경남청소년인권문화제에서 한 고등학생이 외쳤던 말이다. 모든 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는 학생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학생을 함부로 대하는 교사는 언제나 있었고, 교사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되는 걸까?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교도소, 회사, 대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교육이 인권침해의 면죄부가 되는 곳은 초중고등학교 뿐이다. 왜 유독 학교교육에 있어서만 폭력이 허용되는 것일까?

사실 원래 교육을 이유로 한 폭력, 체벌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엔 술 먹고 거리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불량배처럼 웃을 입거나 빗을 맞

잡은 사람들을 경찰이 구타하는 것이 합법이었다. 교도관이 죄수들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구타하는 것도 합법이었고 계급이 높은 군인이 계급이 낮은 군인을 구타하는 것도 합법이었다. 하지만 만약 오늘날 시민들의 두발복장을 단속한다거나 경찰이 즉결적으로 곤장형을 내릴 수 있어야 주장이 나오면 몰상식하다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은 인권이라는 언어가 생기면서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육의 매'는 사라지고 있는데 '야동 교육의 매'만큼은 '사랑의 매'로 여전히 미화된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한 사회의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인권수준이 열악한 곳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교도소의 인권 수준이 곧 그 나라 인권의식의 척도"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도소보다도 더 인권수준이 열악한 곳이 있다. 바로 학교다.

2000년 6월 법무부는 모든 교도소 재소자들의 두발자유화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금 재소자들은 삭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생활지도를 이유로 두발을 제한당한다. 과거와 비교해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가 원하는 두발의 틀을 벗어나면 안된다.

그리고 수감자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일상이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반말조차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에게 반말을 하고 어느 학교에나 학생을 모욕적으로 대하기까지 하는 토라이 교사가 있다는 게 일종의 법칙처럼 여겨진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인권이라는 말은 학교 안에서는 무색해져 그저 교과서에만 나오는 말이 돼버린다.

학교에 인권의 언어를

이러한 학교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바로 경남학생인권조례다.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한 교사는 "교내에서 실내화 신기 규제가 폐지된 이후로 학생들의 발이 아닌 눈을 보고 인사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을 통제대상이 아닌 인간으로 볼



때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행복할 수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적인 학교의 토대가 될 것이다. '조레만드는 청소년'은 함께 더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할 사람을 찾는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있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하고 있는 모임인 '조레만드는 청소년'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검색하거나, sturight.or.kr에 방문해보길 바란다.

[글쓴이 : 이루]

이루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와 조레만드는 청소년 진주지역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레만드는 청소년을 찾아주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NS 맛집 검증] 진주가 원조인 별미, 땡초김밥

매운맛 좀 볼꺼!!

산뜻한 봄바람, 땡초 향기와 함께



땡초김밥 본점은 진주 시내 차없는거리내에 위치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69번길 10)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니 꼭 알아둬서 헛걸음 할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진주에선 9개 매장이 있다

땡초김밥은 지난 2003년 본점인 진주 대안동을 시작으로 총 19개의 가맹점이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진주에는 땡초김밥 본점을 비롯 금산점, 하대점, 신안평거점, 옥봉점, 충무공동점 등 9개 매장에서 땡초김밥을 만날 수 있다. 땡초김밥은 16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통해 진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진주가 자랑하는 별미 음식이다.

필통기자들의 솔직한 평가

땡초 김밥

(2줄에 6000원)

다진땡초+깨밥

+다진당근

매운 정도 ★★★★★

◆하강영(대아고2) 기자 :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으로서 매워서 눈물이 났었다. '땡초김밥'의 대표메뉴로써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도 한번쯤은 먹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은(진양고2) 기자 : 김밥이라고보다는 주먹밥을 먹는 느낌이 났다. 일반 땡초김밥은 땡초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땡초의 식감이 났었는데 '땡초김밥'은 땡초가 잘게 다져져 있어서 먹기 좋았다.
◆민세진(제일여고2) 기자 : 내 취미 김밥^^. 참기름을 발라서 고소하고 땡초가 느껴지는 식감이 좋았다.

땡초 속김밥

(2줄에 6500원)

다진땡초+깨밥

+단무지+어묵+당근

+맛살+계란지단+오이)

매운 정도 ★★★★★☆

◆하강영 기자 : 특별한 특징이 없는 김밥이었다. 땡초김밥 보다는 덜 매운 것 같다.
◆전시은 기자 : 세 종류의 김밥 중에서는 가장 별로였지만 일반 김밥 보다는 맛있었다.
◆민세진 기자 : 개인적으로 비추. 맛있긴 하지만 셋 중에선 별로였다.

땡초 참치김밥

(2줄에 7000원)

다진땡초+깨밥

+단무지+어묵

+당근+맛살+계란지단

+오이+참치마요+깻잎)

매운 정도 ★★★★★☆

◆하강영 기자 : 기본참치김밥에서 매운 맛을 추가한 느낌이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김밥이다. 느끼한 참치의 맛을 매운 맛이 잘 잡아준다.
◆전시은 기자 :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참치와 깻잎이 조화를 잘 이뤄졌다.
◆민세진 기자 : 참치와 깻잎이 신의 한수.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면 추천한다.



▲[왼쪽부터 땡초참치김밥, 땡초속김밥, 땡초김밥]



▲[전체 메뉴가 나온 후 땡초김밥 사진]

[취재/ 민세진(제일여고2), 전시은(진양고2), 하강영(대아고2)기자]

땡초김밥 사장님과의 인터뷰



'땡초김밥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최석호 사장님 : 매운 음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점차 단골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김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땡초김밥은 1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탄생한 작품입니다. 땡초김밥의 특별소스는 위를 보호할 수 있는 4가지의 한약성분을 첨가하고, 국내산 재료만 고집해 만들고 있습니다.

'체인점마다 조금씩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 : 글썄요, 크게 차이가 나고 맛이 다를 순 없죠. 아마도 다른 건 아니고 엄마가 딸에게 음식을 가르쳐 줘도 맛이 다른 것처럼 각 매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장님들의 손맛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땡초김밥, 대놓고 자랑해 보신다면?

사장님 : 저희는 30여 차례의 조리과정을 거쳐 신 메뉴를 개발한 후 6개월 이상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해 엄선된 메뉴만 출시합니다. 제대로 된 기반을 잡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이념과 음식에 정성을 쏟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을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맹점만 개설하며 책임운영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불황에도 폐점한 곳 없이 '땡초김밥'은 진주의 명물로 꾸준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IP. 땡초김밥 맛있게 먹는 방법



마요네즈와 함께 먹는다. 김밥이 덜 맵고 더욱 고소해진다. 땡초김밥이 맵다면 마요네즈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한다. 미니 마요네즈는 1000원이다. 마요네즈는 신비의 소스, 땡초김밥 1도 안 맵음, 역시 마요네즈!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는 별미메뉴 땡초김밥

고슬고슬 지은 밥을 간장소스로 버무리고 매운맛을 느낄 수 있도록 청양고추를 다져 넣은 뒤 김으로 말아서 한입 크기로 썰어내면 되니 재료도, 만드는 과정도 간단합니다.

조리시간 20~25분 | 재료분량 2~3인분

[주재료] 밥 3공기(600g), 청양고추 4개(40g), 당근 약 1/5개(40g), 참기름 2큰술, 참깨 1큰술, 김밥용 김(A4 크기) 5장, 간장소스(4큰술 분량), 청양고추 1개, 물 2큰술, 양조간장 4큰술, 설탕 1/2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STEP1



작은 냄비에 간장소스, 청양고추 1개, 4등분해 넣고 모든 간장소스 재료를 넣은 후 약한 불에서 5분간 졸인다.

STEP2



청양고추 4개는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당근과 함께 잘게 다진다. 볼에 밥, 간장소스, 청양고추, 당근, 참기름, 참깨를 넣고 잘 섞는다.

STEP3



펼친 김의 2/3 정도 위에 ②의 양념한 밥 1/5분량을 올려 고루 편 후 김밥을 돌돌 만든다. 나머지 김밥 4줄도 같은 방법으로 돌돌 말아 한입 크기로 썬다.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매운맛은 맛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운맛 하면 바로 생각나는 떡볶이, 불닭 볶음면, 닭발같은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맛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합니다. 통각은 가시에 찔리거나 부딪혔을 때 세포가 느끼는 아픔인데요. 통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통증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사람의 혀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총 5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책에 맛의 지도라고 해서 혀의 어느 부분에선 단맛을 어떤 부분에선 짠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식으로 가르쳤지만 실제로 그 부위가 아니더라도 맛을 느

낄 수 있기에 그 지도가 최근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혀가 느낄 수 있는 5가지 맛은 미각세포가 느끼는 것인데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기 때문에 미각세포가 아닌 통각세포가 이것을 느낍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지고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은 이 통각세포가 둔해서 그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포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적응이 되기 때문에 매운맛을 잘 먹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매운맛을 먹어주면 세포가 둔해져 매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한번 먹었을 때 너무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계속 땡기는

데요. 이것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엔돌핀이 분해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식으로 고통이 사라지게 만드나요? 물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운 감각은 사라지지만 우유나 쿼크를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운 음식을 도전하는 가게엔 필수적으로 쿼크를 판매하죠. 우유나 쿼크는 매운맛을 희석시키기에 효과적인 음식들입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매운맛을 녹여주고 쿼크의 설탕이 매운맛을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유는 매운 음식을 먹기 전에 먹으면 위에 보호막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죠.

[진주 역사투어] 천년고찰 청곡사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

진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국보가 있다는데!

진주의 역사를 찾아가는 진주역사투어! 오늘 의 주제는 '진주의 국보'입니다.

진주에 국보가 있었다길 아시나요? 진주에 국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국보를 만나러 청곡사 문화박물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진주 청소년들이 한번쯤 찾아보기 참 좋은 곳이 바로 월야산 청곡사다. 말 그대로 천년고찰이다. 신라 헌강왕 5년(872)년에 도선 국사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으니 그동안의 사연도 참 많을 듯 하다. 푸른하늘이 날아온 명당터라 해서 지어진 이름인 청곡사에서부터 조선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로맨스까지, 청곡사 주차장에서 운치 넘치는 일주문 길을 걸으며 이런 저런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는 것도 재미

진 일이 없을까?

우리가 사는 진주의 유일한 국보를 다름 아닌 이곳 청곡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건물 3층 규모의 거대한 그림 한 장, 탕화를 보기 위해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 가서 만나게 되는 조금은 색다른 부처의 모습, 웅장 모를 엄숙한 기운도 일상을 떠난 새로운 경험이 될 듯하다.

반복되는 일상, 조금은 답답한 시간들의 연속 일수 있는 학창시절.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끔 일상을 깨어 보는 것도 생활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PC방 노래방, 영화관도 좋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맘껏 자연을 즐기고 역사를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으로 추억을 쌓아보



〈청곡사 전경〉

는 것도 멋진 일이 아닐까? 261번, 262번 시내버스를 타고 금산과 금호지를 지나 갈전마을에 내려면 1킬로도 되지 않는 곳에 천년고찰 청곡사가 있다.



〈청곡사 일주문을 들어서는 길〉

진주 유일의 국보 영산회괘불탱

진주 금산면 청곡사 문화 박물관에 국보가 있다. 국보란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청곡사에 있는 국보는 제302호로 정식 명칭은 청곡사영산회괘불탱이다.

이 그림은 조선 경종 2년(1722)에 승려화가인 의겸과 80명의 승려가 참여해 석가가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교 그림이다. 압도적인 크기의 이 탕화의 규모는 세로 길이 10.4m, 폭은 6.4m 크기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불교 그림이다. 석가를 중심으로 양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그려져 있다. 문수보살은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며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행동을 대변하는 불교그림에 항상 등장하는 대표 인물들이다.



이 국보 탕화는 박물관 지하 2층 지상 1층을 활용하여 보관하고 전시, 관람하게 하고 있다. 전시장이 마련되기 전에는 나무 껍 4개를 이어서 만든 통에 말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7대괘불 중 유일한 국보로서 실제로 보면 크기도 엄청 크고 장엄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다.



(사진촬영 금지이지만 특별하게 허가를 얻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국보인 괘불 이외에도 보물 1232호로 지정된 대법천왕 및 제석천왕,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와의 혼인을 기념하여 만들었다는 청동향완, 업경대, 청동여래좌상, 나반존자 등의 가치 있는 문화재를 만나 볼수 있다. 크지 않은 작은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잠시 먼 역사속으로 빠져들게 하기엔 충분하다.

청곡사, 이성계 그리고 갈전리 로맨스

고려 말 1380년경 남해에 노략질하러 출몰하는 왜구들을 소탕한 이성계 장군이 청곡사에 참배하러 왔다가 마을 입구 우물가에 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자신도 목을 축이려 했는데 그때 물바가지에 나뭇잎을 띄워서 이성계장군에게 건네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 청곡사 아랫마을에 사는 진양 강씨 부인이니 훗날 조선 태조의 둘째왕비인 신덕왕후였다.

당시 청곡사 마을 이름이 "갈마정"으로 목마를갈(渴), 말마(馬), 우물정(井)이었으니 지명에 나타나듯 전설을 얘기해 준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갈전"으로 변했다. 신덕왕후는 그 후 고향마을의 청곡사를 대대적으로 불사하고 조선왕실의 비보사찰이자 원찰로 삼

았으며 조선왕조 대대로 이어져 왔다.

태조 이성계와 왕비는 죽어서도 서로의 곁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태조 이방원이 왕위를 받으면서 운명은 그 둘을 갈라놓아 신덕왕후는 정릉(서울 성북구 소재)에 태조는 건원릉(경기 구리시 소재)에 모셔져 지금까지 서로 그리워하고 있다.



뭘? 진주에 국보가 또 있었다고! 축석루 국보로 다시 돌아올까?

진주성 동쪽 남강 바위 절벽 위, 우뚝 솟은 축석루는 평양의 부벽루,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축석루는 고려 고종 28년에 창건해 여덟 차례의 중건과 보수를 거쳤다. 오래 전 축석루는 진주성을 지키는 본부로 사용되기도 하고, 향시를 치르는 고시장으로 사용되었고 선비에게는 풍류를 즐기는 장소였다.

보통의 사적과는 다르게 축석루는 출입이 개방되어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과 함께 했다. 축석루는 1948년에 국보 제 276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비행기 폭격으로 불에 타 소실되며 그 모습을 잃게 되었고, 1956년 국보에서 해제되었다. 소실된 축석루는 1959년 국비로 재건을 시작했으며, 전국 최고의 문화재 장인 기술자들이 참여해 소실된지 10년만에 재탄생하였다. 축석루는 1960년 재건 당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원형이 소실되어 재건되었다는 이유로 예전의 '국보'가 아닌 '지방문화재 자료 8호'로 지정됐다. '문화재 자료'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모두가 '국보'라고 알고 있었던 축석루는 그저 '문화재 자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진주의 자랑인 축석루가 다시 국보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84년 화재와 1957년 폭우로 쓰러져 중건된 밀양 영남루는 축석루와 달리 보물을 유지하고 있고 2008년 방화로 소실된 승례문 역시 국보 1호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축석루가 재건축이 아니라 보수, 복원되었다는 정부기록문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설계도 일부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의 축석루가 원형대로 복원되었다는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진주에 국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진짜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를 만들 수 있다. '진주역사투어'를 따라 역사여행길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문화재관람 Tip!!

현재 국보(청곡사영산회괘불탱)를 보기 위해서는 대략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미리 청곡사로 전화해 예약을 해야 한다. 물론 관리상의 문제다. 또한 플래시를 사용해 사진을 찍으면 문화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제한되어 있다. 청곡사의 국보를 직접 보고 싶다면 버스 261번 또는 262번을 타고 신기마을에서 내려,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걸어 가면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청곡사까지 도착할 수 있다.

[맏칸년맏반 2018] 수고했어~ 진양고 1학년5반편

항상 넘치는 에너지, 언제나 변함없이 밝은 모습이었던 1학년5반을 친구들! 잊지 않을께~

쉬는 시간에도 잘 놀지만 수업시간에도 잘 놀아서 1년 동안 담임선생님 속을 썩였던 1학년 5반~!!! 한 해 동안 수고했고 너희들과 같은 1학년5반이라서 행복 했어♡



담임선생님 강주리

그 누구보다 말썽쟁이 5반을 잘 챙겨주신다. 평소 '엔젤주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착하시다. 가르치시는 과목이 영어지만 우리 반 영어성적은 그닥 좋지 않다..ㅎ 쌤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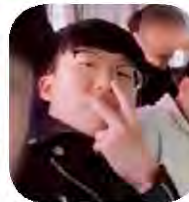
우리반 이상형 & 하고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김윤강	착하고 웃을 때 이쁜여자	오민실 가고 싶다
김주윤	강민혁♡최치균	폐북세범이 많은 관심 주세요
김태완	밥 잘 사주는 예쁜 여자	미주야 내가 본 여자중에 니가 젤 이뻐어
문민규	박시우	진양고 문예준 여친구함
박경훈	빌리 아일리쉬	5반 피자들 덤벼라
박정현	팔씨름 잘 하는 여자	팔씨름 잘하고 싶다
심건보	ALL1등급인 사람	뽕이고 예쁜사람
심준영	천사	할렐루야
여지호	태권도 잘하는 여자	명문남중 화이팅
이시연	암겟고라니	귀여운 1학년5반♡
이현준	몸무게100kg이상,키2m이상,1살이하	완전 신난다
정병훈	딱히...	사탐은 임정환☆
정재현	전소민	김규영 사랑해
김두루	착한남자	영화 같이보자
김서현	입동굴	1학년5반♡
김혜은	변백현	엑소 사랑하자
노선주	키 크고 보조개 있는 남자	장은령 귀여워
박미주	돈 많은 남자	김지민 계속 나대면 거른다
서유민	엑소	스엠 일종하자
임남경	귀여운 사람	김나/배서/유수/황지.
임수민	무쌍에 코 이쁘고 착한사람	dlatnsl 인스타임^_^
장은령	웃을 때 눈 실종> <	노선주 귀여워
전시은	성격은 승현쓰, 얼굴은 김민규	19패스 마이백
정다빈	콧구멍이 예쁜 남자♡	은룡이 귀여워
정호진	스윙스처럼 랩 잘하는 손흥민	미래 토트넘 구단주
하미라	친절한 남자	영화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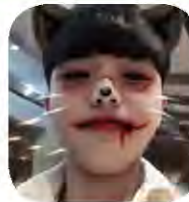
매력 넘치는 최고의 친구들!



김윤강: 활발하고 귀여운 친구다. 축구 농구 등 구기종목을 정말 좋아한다.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 나오는 아들이와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심심할때 놀자 하면 바로 나오는 친구. 평거동에 사는데 전화 한통이면 혁신까지 온다.



김주윤: 우리반분위기 메이커1. 가끔 선생님들과 갈등도 겪지만 반 친구들에게 잘 대해주며 제일중학교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 1학년5반 단독방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친구 중 한명이다.



김태완: 우리반분위기 메이커2. 수업시간엔 잠을 자지만 쉬는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활발하다. 학기초에 썼던 안경을 벗으면서 더욱 잘생겨진 친구다. 마친 가지로 선생님과의 마찰은 가끔 있지만 반 친구들과는 정말 잘 지낸다.



문민규: 단지 성이 문씨라는 이유로 '문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또 이마가 이쁘고 동글동글해서 '타코야키'라는 별명도 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정말 좋은 친구다. 농구를 무척 좋아하여 체육시간마다 농구를 한다.



박경훈: 잘생겼다. 느끼 하긴 하지만 웃는 모습이 잘생겼다. 플루트를 잘 불며 공부도 잘 하는 편이다. 수업시간에 고개를 돌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윙크를 하는 친구다. 성격도 밝으며 보충수업시간마다 피시방에 가기로 유명하다.



박정현: 하루종일 팔씨름만 한다. 모든 애들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조른다. 심지어 팔씨름을 배우러 혼자 부산까지 갔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커서 팔씨름 선수가 될거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보기엔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ㅎ



심건보: 공부 정말 안하는 우리 반을 힘겹게 이끌어가는 브레인이다.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다. 예상 외로 피시방을 가는 등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체구는 큰 편이지만 그에 비해 귀여운 점이 많은 친구다.



심준영: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이 친구 첫인상을 보곤 착할거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편한 친구이다. 부탁을 할 때마다 항상 거절하지만 결국 들어주는 착한 친구이다.



여지호: 우리 반의 팔씨름 담당이다. 항상 힘이 넘치고 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매일 헬스와 태권도를 열심히 하며 자칭 진양고 이대훈이다. 세계태권도협회장과 진양고등학교 팔씨름제패를 꿈꾼다.



이시연: 외모가 고라니를 닮아 고라니라고 불리는 친구다. 자동차를 정말 좋아한다. 친구들과 다같이 PC방을 가면 유일하게 자동차게임을 하는 친구다.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며 고음도 쭉쭉 올라간다.



이현준: 혁신도시에 있는 명랑햇드에서 일하는 친구이다. 핫도그를 정말 잘 튀기고 농구를 진짜 정말 잘한다.(진양고 농구부 주장이다) 다소 성숙한 외모로 친구들이 놀라기 하는데 성격이 정말 좋아서 웃으며 받아쳐준다.



정병훈: 현직 필통기자이다. 피부 톤이 어두워서 '니거'라는 별명이 있으며 심심할 때마다 친구를 속이고 만족스러워 한다. 운동을 좋아하며 낮은 천해지면 180도 달라진다. 정말 착해서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노선주: 우리 반에서 가장어린 막내이다. 유일한 03년생이지만 우리 반 여자들 중에서 젤 언니 같다. 교실이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자주 누워서 잔다. 흥분하여 말이 빨라지면 발음이 이상해져서 반 친구들에게 웃음을 준다.



박미주: 우리 반 부반장이며 스스로가 섹시, 큐티, 프리티 3개의 미인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시끄러운 친구들을 남다른 카리스마로 조용히 시킨다. 엉뚱한 매력에 넘쳐 친구들에게 항상 웃음을 준다. 참고로 운동신경이 남달라 조정 전국 체전까지 휩쓸고 왔다



임남경: 글씨가 참 예쁘다. 급식 먹을 때 마다 밥을 받는 양을 보고 매번 놀란다. 남자애들 두 입이면 다 먹을 정도의 양만 받는데 그렇게 먹고 어떻게 학교를 잘 다니는지 모르겠다. 항상 웃으며 지내는 밝은 친구이다.



임수민: 미래의 할리우드 스타.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고 친화력이 매우 좋다. 외국영화와 음악을 좋아하며 수시로 외국 음악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 항상 밝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안 좋아한다.



장은령: 얼굴만 보면 초등학생. 하지만 골치덩이 5반을 1년 동안 달 없이 이끌었던 반장님이다. 게다가 필통 부대표까지...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도 자신이 귀여운 걸 안다. 우리 반을 대표하는 자각대장 중 한명이다.



전시은: 진짜 요즘 세상에 몇 명 안 되는 진짜 착한 사람 중 한명이다. 예쁘고 매사에 성실하며 남을 잘 돕고 현재 필통기자로서 열심히 활동 중이다. 나름 태권도 유단자로서 교실에서 친구들과 겨루기를 하기도 한다.



정다빈: 특유의 친화력으로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친구이다. 활발하게 지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웃음이 많고 노래를 잘 부른다. 항상 씩씩하게 지내지만 여린 면이 있는 친구이다.

[취재/ 정병훈(진양고2)기자]

영어 자막은 있는데 한국어 자막은 왜?

K-POP 뮤직비디오에 한국어 자막이 없는 이유

K-POP은 엄청난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26일에는 BTS(방탄소년단)가 한국 가수 최초로 국제 음반 산업협회에서 선정한 '글로벌 아티스트 톱10'에 올랐다. 다시 한번 BTS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BTS 뿐만 아니라 한국 가수의 음반을 빌보드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제 신기한 일이 아니다. 작년에는 블랙핑크가 2009년 이후 K-POP 걸그룹 중 처음으로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는 등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K-POP의 세계화에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는 것은 바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 '유튜브'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은 접근성이 높다. 한국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관심을 끌었다. 해외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는 대

개 열창 또는 댄스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짧은 노래 속에 스토리텔링과 영상미가 잘 버무려진 뮤직비디오는 해외 리스너들에게 색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K-POP을 귀로 듣는 음악 장르를 넘어 시각적 즐거움과 영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까지 던져 주고 있다.

K-POP의 세계화에 힘입어 한국 가수의 뮤직비디오에는 대부분 영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 리스너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어 자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뮤직비디오에 영어 자막을 삽입하려면 기존 원어(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후에 영상과 노래에 맞게 삽입해야 한다. 한국어 자막은 번



역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서비스되지 않는다.

“어차피 한국어인데 자막이 없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자막의 순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자막은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국내 음악 프로그램에서 자막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다. 또한 자막은 청각장애인이 영상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하다. 뮤직비디오 또한 예외는 아니다. 원어를 그대로 넣으면 되는 한국어 자막을 영어 자막보다 찾기 힘들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치 일반 영화관에서 국내 외국인 영화관처럼 한국 영화를

외국 자막으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 K-POP의 세계화에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언어로 자막서비스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자막 전에 한국어 자막을 통해 국내 리스너들을 배려해주었으면 한다. 자랑스러운 한국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한국인이 제대로 즐기 못하는 건 이상하니까 말이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어쩌면 그것이 기본이다.

[취재/ 김동민(동명고2)기자]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된다고?

학교폭력제도 개선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사고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교육부는 1월 30일, 학교폭력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발이 이뤄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전 조치를 포함한 학교폭력 이력 전부를 생기부에 기입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개선 방안'을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기부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는 1회에 한하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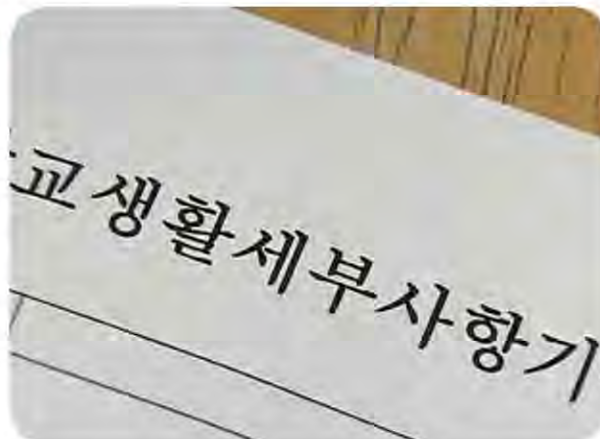
문제는, 주요 개선내용 중 '교내 선도형 가해학생조치 단계 중, 1 내지 3호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 항목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회복적 교육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감증을 조장하거나 1~3호 처분을 받기 위해 불복 재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에도 갑론을박이 심하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한다면, 학교나 가해학생 측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는 측과, 일부 학교폭력은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찬성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2,200명의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학생 조치 일부 학생부 미기재' 항목에 대해 찬성이 40.2%, 반대가 59.8%로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컸다. 찬성답변에 관해서는 '가해학생이 반성한 후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 근거였으며, 반대답변에 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대한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 근거였다.

학교폭력은 학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학생들



의 삶과 일상에 직결된 사안이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생기부 기재를 않는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학교자체해결 제도 또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채우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기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취재/ 구하나(삼현여고1)기자]

시간 채우기가 목적이 되어 버린 봉사활동

생활기록부용 억지 봉사활동으로 무엇을 얻어야 하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 “지역 사회의 복리 증진.” 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과연 그러한 이상적인 효과를 얻으며 매년 수십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 아마도 동의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 진학 시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기록부, 그 중 봉사활동 확인란 또한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고등학생들은 외부나 교내에서 자신의 진로와 맞는 봉사활동을 한 후 인증서를 받아 선생님께 제출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받은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시간 채우기’가 목적이 되어 버린 봉사활동은 여러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이미 학교에 제출한 봉사활동 인증서의 날짜만을 수정해서 마치 여러 번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난로나 에어컨을 틀어주고, 쉬운 일만 해도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속칭 ‘꿀 봉사활동’만을 찾아다닌다. 결과적으로 노인, 장애인의 식사 및 목욕 보조

같이 어려운 일은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서 기피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일종의 귀찮은 숙제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식의 의무 봉사활동이 과연 필요할까? 대학을 갈 때 의무 봉사활동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은 억지로라도 시키려 하고,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왜 하는지 모른 채 시간만 채우는 봉사활동 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봉사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학생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인성이 길러지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길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학교는 학생들이 오로지 진학을 목적으로 두는 봉사활동이 아닌 이웃과 다른 사람,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일지라도 학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자세는 “여기서 내



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라며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주는 것이다.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다는 다짐이 봉사활동 시간을 허투로 사용하지 않게 할 것이고 자신에게 봉사활동 시간만이 아닌 진정한 봉사의 ‘기분좋은’이 남을 것이다.

[취재/ 원지현기자]

[19금 파헤치기] 방송심의규정, 얼마나 알고 있나요?

방송불가 판정 받은 19금 장면들

방송심의규정이 궁금해!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드라마나 예능과 같은 방송매체. 그런데,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매체들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에 관하여 청소년들이 잘 알까? 궁금증이 생긴 필통기자단은 이번 '19금을 찾아서'를 통해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그 내용을 낱알이 파헤쳐보았다.

방송심의규정이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방송내용에 관하여 공정성이나 객관성 등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텔레비전만 켜면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매체들, 청소년들은 과연 그 방송을 심의하는 규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진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남녀 각각 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해보았다.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질문에는 여학생은 '대충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80%로 제일 많았고, 남학생은 '모른다'라고 답변한 수가 45%로 가장 많았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에서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본 적이 있다'라는 답변이 각각 75%, 60%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방송심의규정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시청연령 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답변이 각각 95%, 75%로 가장 많았다.

설문 조사를 토대로 알아본 결과, 방송심의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던 청소년이 꽤 있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매체에서는 방송시청연령을 위반하며 선정적인 장면이 무작위로 방송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녀노소 상관없이 소비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시청을 규제해야 할 방송심의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방송불가 판정, 걸그룹의 한결같은 섹시 컨셉들

더 야하게, 더 노골적인, 더 연상되게, 더더더...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



▲전효성 반해 뮤직비디오



▲걸스데이 something 뮤직비디오



▲포엘 MOVE 뮤직비디오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직비디오



▲선미 보름달 뮤직비디오



▲스텔라 마리오네트 뮤직비디오



▲가인 Paradise lost 뮤직비디오



▲스텔라 떨려요 뮤직비디오

우리의 스타, 우리 친구들을 더 이상 벗기지마라

방송심의규정 제7조에 의하면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35조에 의하면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이 있지만, 실상은 말만 번지르르한 실제하지 않는 조항일 뿐이다.

방법은 없는가? 없다. 스타를 꿈꾸며 아이돌고시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의식이 바뀌던지, 기획사 스스로의 자성으로 자체적인 정화가 이루어지던지, 방송사가 건전한 통제력을 발휘하던지, 아니면 대중들의 걸그룹 노출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지던지 어느 하나라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쩌면걸그룹의 섹시어필 문화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능할까? 영원히 올릴 수밖에 없는 연습생들이 변할 수 없고 이윤추구와 돈이 목적인 기획사가 바뀌어 질 수 없다. 방송사가 갑인 시절도 흘러 갔고 시청율에 목숨 거는 것을 보면 방송사의 변화도 그리 희망적이지도 않다. 결국 대중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되는 걸그룹의 노출전쟁, 성상품 판매를 지켜봐야 한다는 소리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원한다면 포르노를 찾아 볼 수도 있다. 사실 웬만한 청소년들은 손쉽게 성인물을 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TV등의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묻고 싶다. 걸그룹의 구성원도 10대가 많고 그들의 팬 역시 10대 청소년들이 주를 이룬다. 과연 그들이 이런 노출, 성상품화를 원한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원해서 그들을 쇼걸로 전략 시키는가 말이다.

이제 청소년들이라도 목소리를 높여 애기하자. 우리의 스타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더 이상 벗기지 말라고 말이다. 더 이상 상품 취급하지 말라고 말이다. 우리는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무대와 노래, 춤을 보고 싶은 것이지만 그들의 속살에는 관심 없다고 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1조 '인권 보호'

3항 -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 27조 '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항 -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 35조 '성표현'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 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 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상간·시신 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흥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 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 -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4조 '수용수준'

2항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5조 '출연'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맏칸년맏반-신청] 2018 선명여고 1학년7반편

깨끗하게 말게 자신 있게! 미모 탑 클래스 항기 넘쳤던~ 1학년 7반의 그 꽃밭

우리 반에 들어 서면 늘 좋은 향기가 났었다. 여고의 환상을 느끼게 했었던 유일한 반, 학생 수가 적어서 인지 가족 같은 분위기에 언제나 긍정적인 7반이었다. 모든 친구들의 매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다정함과 따뜻함을 더해서 환상의 7반을 만들어 냈다. ♡아름다운 7반, 귀여운 7반, 착한 7반을 기억합니다.♡



♪ 7반의 담임선생님 ♪ 김빛나선생님
천상의 목소리를 소유한 선명의 하니뿐인 음악
선생님. 현란한 피아노 실력은 웬만한 피아니스트
잘 가라~♪ 선생님의 패션 센스는 웬만한
모델 잘 가라~♪ 7반 아껴주는 마음은 웬만한
성모 마리아 잘 가라~♪ 똑 부러지는 입담은
웬만한 MC 잘 가라~♪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미진	밤 8시 이후로 전화 안하고 게임 잘 하는 사람	양순아 집 가면 멀치 줄게♡
김민경	냄새 안 나고 공감대가 비슷하며 예의 바르고 얼굴이 하얀데 피부가 좋고 키 180 넘는 사람	실내 데이트 좋아해요
김수경	더치페이 할 줄 알고 차아 가지런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	@water_k__18
김지수	X	수갱이
김하진	한예중 성악과 나오고 웃을 때 애꿏살이 예쁜 사람	@chuvely
김현지	쓰리피스 잘 어울리고 수영 하는 사람	농협 356-1261-6386-33
백세민	키 170이상에 연락 잘 되는 사람	자기앞 수표길 걷게 해주세요
우혜빈	대이고등학교 허우준	막창 먹고 싶다.
윤지원	집 데려다 주는 사람 (집 대평임)	연락해
이도은	섬유 유연제 향이 나고, 잘 웃어 주면서 귀여운 남자	보고 싶다
이유나	전정국	대평 막차 9시
정소정	지나갈 때 섬유 유연제 향이 나고 웃을 때 콧털 안 보이는 남자	같이 돼지 껌데기 먹으러 갈 사람)X
정수영	나보다 키 크고 착하고 연락 잘 하는 사람	배구부 다치지 말고 힘냅시다 화이팅♡
조보민	키 크고 웃을 때 예쁜데 회계 잘하는 잘생긴 남자	♡
최은수	연락 잘 하고, 착하고 다우니 향기 나는 남자	ㅎㅎㅎ
최은주	운동하는 남자	야 보면 연락해

미모뽕뽕! 매력발산! 멋진 친구들



김지수: 우리 반 대표 기요미 땅콩. 기분에 따라 성격의 온도 차이가 심하지만, 기분이 좋을 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재밌는 반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항상 광합성 중이라서 모습을 보기 힘들다. 얼 굴만 봐선 키가 보이지만 151cm로 아주 귀여운 친구. 몇 달 전 명신 축제를 다녀온 후 운명의 상대를 찾은 것 같다.



정소정: 제2의 이효리. 수사견만큼 냄새에 민감하지만, 우리 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7반에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모델 위킹을 제일 잘한다. 잔재주가 많고 그녀의 엉뚱한 매력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최은수: 우리 반 한혜진. 대표 수다쟁이로 말이 많고 빠르면서 체육 시간마다 반 아이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띄운다. 4차원의 엉뚱한 매력은 그 누구도 못 이긴다. 그리고 키에 비해 말라서 실찌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우혜빈: 반에서 제일 얼굴이 작은 상봉 엄지공주. 항상 웃으며 찬방지축인 호기심 덩어리이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서 끌리는 친구. 날씬한데 다리도 길어서 남부러운 비율을 가지고 있다. 사교성이 좋고, 매일 친구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다.



김수경: 우리 반 대표 화성기. 매일 잠만 자서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지만, 한 번 일어나면 숨 실 뜰 듯 없이 돌아다니고 매일 웃는다. 믿기 힘들지만 7반에서 제일 이쁜 100% 자연 미인이다. 다이어트한 꼬부기처럼 귀엽게 생겼지만 화장을 하면 무서운 센 언니로 변한다. 그리고 색다른 애플 힙을 소유하고 있다.



최은주: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7반의 가수. 은주는 진짜 엉뚱하다. 갑자기 혼자 웃고 흥분하고 짜증내고 기분이 다양해 팔중언덕자라고 해도 될 판. 그리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산다. 여름방학 때 10kg이나 감량을 하고 인기가 됐다. 또 애교도 많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조보민: 호탄 여대장 우리 반 부반장이다. 노는 걸 좋아하지만 성적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맨스부 주디스로 틈만 나면 춤을 추고 애교를 부린다. 미모로는 7반에서 탑클래스. 제일 자랑거리기는 몸매에 색시미가 가득 담겨있다. 그리고 알아주는 금사빠지만 한 사람에게 빠지면 항상 고생한다.



윤지원: 대평 꽃감 미녀. 저 멀리 대평에서 뽕가동까지 통학하면서 학교와 장거리 연애 중인 친구다. 우리 반에서 대평이라는 타이틀로 인기가 됐고, 꽃감 때문에 한 번 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업계 나오는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겨서 많은 인기를 받았다.



김하진: 우리 반 브레인. 우리 반 최고 엘리트다. 할 말이 있으면 꼭 부러지게 잘 이야기한다. 일 본어를 정말 잘해서 일본어 선생님의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다. 아무나 소화하지 못하는 헤어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만든다. 웃을 때 들어가는 보조개가 제일 예쁜 친구다.



백세민: 성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민이다. 그리고 낮가림이 없지 않아 있어서 친해지기 전에 는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 또 교복 마이가 잘 어울리고 성숙한 느낌에 웅의복장도 항상 단정하면서 깔끔한 용모로 모범생의 이미지가 강하고 뽕지 다 열심히 하는 친구다.



김현지: 우리 반을 잘 이끌어 준 반장이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헌신과 봉사의 아이콘이 되었다. 사실 늘 반장이라고 불려서 현지라는 이름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 그리고 KBS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의 3인까지 남으면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줘서 모든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김민경: 한국에서 얼굴이 제일 빨간 우리 홍설기. 얼굴이 누구보다 하얗고 햇빛 보는 걸 싫어해서 하루 종일 창가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다. 화장도 잘해서 그 모습만 보면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한다. 키도 크고 토종 한국인이지만 혼혈 같은 미모에 잘 빠진 몸매를 소유한 숨겨진 보물이다.



이유나: 우주 최강 기요미 선명 명문 배구부. 반에서 제일 큰 존재감을 갖고 있다. 배구부라고 믿기지 않는 아담한 키와 귀여운 미모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한 배순이다. 그리고 부반장인 보민이에게 시누이라고 부른다. 보민이에게 동생을 뽕길 위기에 처해있어 고통 받고 있다.



이도은: 볼 살이 통통하고 귀여운 도은이. 엄청난 이미지지만 조곤조곤 할 말은 다 한다. 목소리가 귀여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도 미소가 지어지는 최고의 귀요미다. 최근엔 다이어트를 한다 고 점점 운동에 열심이다. 뽕안 피부를 가진 것이 남부럽지 않은 장점이다.

맏칸년맏반 신청바랍니다.

카톡ID : feel1318
이메일 : feel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을 보내주세요.

[씨네통통]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 1989)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되는 것"



비하인드 스토리

'죽은 시인의 사회' 관계자는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소설이 원작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영화의 각본가인 톰 슐만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라며 "이후 NH 클라인 바움에 의해 소설로 역작해 돼 책으로 출간됐다" 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특히 "영화의 배경이 되는 웰튼 아카데미는 슐만의 모교인 내슈빌에 있는 몽고메리 벨 사립학교로, 그가 학교에서 직접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본을 구상했으며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그의 실제 지인들을 모델로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생님 역인 존 키팅 또한 원래 로빈 윌리엄스가 맡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맥아더 장군으로 등장하는 리암 니슨이 낙점됐지만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몇 차례 돌고 돌아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 역을 맡게 됐다. 한편 '죽은 시인의 사회'는 로빈 윌리엄스 추모 2주기를 맞아 지난 2016년 8월 18일 리마스터링 돼 재개봉했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잊지 못할 명대사



'죽은 시인의 사회'는 제6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제4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특히 한국인이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영화 1위에 꼽히며 2016년 8월 재개봉하기도 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명대사를 10가지로 정리해봤다.

1. "현재를 즐기라" -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
2. "말과 언어는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다" -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
3.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
4.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것" -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
5. "살아 아난 것을 모두 떨치고 삶이 다했을 때 삶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 - 닐 페리(로버트 손레너드)
6.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땐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라" -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
7. "진실은 발을 차갑게 하는 이불 같은 것입니다" - 토드 앤더슨(애단 호크)
8.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이제부터 여러분도 나름대로 견도 록 해라" -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
9. "대답할 시간과 조심할 시간은 따로 있다" -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
10. "우리가 노력 없이 얻은 과분한 운을 가졌다면 겸손한 자세로 고치겠습니다" - 닐 페리(로버트 손레너드)

[영화 감상 후 기자들의 생각]



나는 키팅 선생님의 교육방식에 찬성하는가?

◆정명빈 기자 : 나는 개인적으로 키팅 선생님의 교육방식에 반대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문학과 시의 재미를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좋

은 수업이지만, 이 학교는 엄연히 고등학교이고, 대학교를 가기위한 과정이다. 자신이 문학과 시에 뜻이 있다면 대학교에 가서 키팅 선생님의 교육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대학교를 가야하는 입장이고, 대학에 가기위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이론수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키팅 선생님의 수업에는 단 하나의 이론도 없이 오로지 시를 느끼기 위한 수업만이 있었다. 이런 수업이 몇 번 있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이론과 시험에 대한 수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김가은 기자 : 찬성하는 입장이다. 키팅 선생의 수업은 당대에 있어 색다른 교육방식으로 자아를 상실한 아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준다. 억압과 강요받는 공부 아닌 키팅 선생의 가르침과 같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목

표를 좇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아실현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돕는 창조적인 공부라 생각한다. 키팅 선생의 가르침은 공부가 아닌 길을 찾으란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란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키팅 선생의 문학 수업도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카르페 디엠 (carpe diem) 현재를 잡아라 Seize the day

11990년 5월 국내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국의 입시 명문 웰튼 고등학교에서 새로 부임한 존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휴먼 드라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제6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제4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특히 한국인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영화 1위에 꼽히며 2016년 8월 재개봉하기도 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카르페디엠에 이 영화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다. 꼭 시험기간만 되면 찾아오는 친구들의 대화창 명이나 지금으로 하지만 카톡 대화명에 표시될 법한 그 유명한 문구 말이다.

필통 시사회 평점

평균 평점 9.06점



참가자	감상평	내가 꼽는 한 장면	평점
구하나 (심현여고)	키팅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그대로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었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며 현재를 즐기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생님이 계셨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영화 속의 키팅 선생님이 현실에 있었으면 좋겠다.	날이 연극의 엔딩을 장식하며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의 대사를 곳곳이 해낸 장면	9.5점
김원동 (진주교)	이 영화를 보고 키팅 선생님이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닌,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 현재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에 관하여 진짜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날의 아버지가 끝까지 날이 연극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 "부모가 이렇게까지 자식을 힘들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화나고 슬픈 장면이었다.	10점
MSY (선명여고)	초반에는 지루했지만 끝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 화면의 색감이 맘에 들고 배우얼굴도 맘에 든다.	마지막에 학생들이 책상 위로 일어서는 장면	5점
조민수 (중앙고)	carpe diem!	날이 자살하는 장면	10점
CSEW (제일여고)	이 영화를 이제야 봤다는 게 후회스럽다.	"Oh captain, my captain," 을 외치는 장면	10점
정보경 (중앙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죽어서 너무 슬펐다. 난 원래 시, 음악, 미술에 관심이 많은데 모두 적절히 들어가 재미있었다. 이 영화는 두 번째로 보는 건데 처음 봤을 때 찰리가 가슴을 그리는 장면과 여성 누드 사진을 펼치는 장면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찰리의 자유로움과 낭만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표현된 장면이라 좋았다.	철새들이 우리 지어 날아가는 장면 바로 뒤에 계단에서 학생들이 우리 지어 있는 모습	9.9점

표를 좇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아실현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돕는 창조적인 공부라 생각한다. 키팅 선생의 가르침은 공부가 아닌 길을 찾으란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란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키팅 선생의 문학 수업도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날의 부모님이었다면 날이 연기하는 것을 찬성했을까?

◆정명빈 기자 : 나는 날이 연기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도 어렵겠지만 찬성하진 않았을 것 같다. 연기자로서의 삶은 힘들고 수입이 많은 직업이 아닐뿐더러 성공하기 힘들다. 날이 자신의 뜻대로 연기를 해서 배우가 된다

고 해도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 있을 것이다. 날은 명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성적도 좋다. 우선 직업을 가지고 취미로 연기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가은 기자 : 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꿈은 바뀔 수 있으며 연기자로서 성공은 불확실한 미래이다. 때문에 재학 중 진로 준비는 본격적인 연기자 활동보다는 간간이 연극과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순위는 대학 진학 목표로 두자고 얘기할 것이다. 대학 졸업 후에도 연기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것이다.

[취재/ 김가은(제일여고2), 정명빈(진주교2)기자]

[I'M FASHION PEOPLE] 오늘은 뭐 입지?

나를 표현 하는 것 & 내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10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 교복을 제일 많이 입게 된다.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똑같은 교복이 아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패션을 코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상의 경험이다.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주위 친구들을 찾아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어 보았다. 나름 패션리더를 자칭하는 친구들을 어떤 옷, 얼마짜리 옷을 입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오늘 뭐 입지?



FASHION PEOPLE

구하나 (삼현여고 1학년)

"항상 자금이 우리 생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지고 젊은 날"

TYPE 1



아우터 :
NI
28000

상의 :
원더플레이스
35000

신발 :
보세
32000

하의 :
써리미(30ME)/
3065스프링
스판킷팅 팬츠
24900

TYPE 2



가방 :
낫파운드프로젝트/
have messenger
BAG
65000

상의 :
크로스트레슬리/
CROSS TOMATO
KETCHUP HOODIE
74000

신발 :
아디다스
69000

하의 :
써리미(30ME)/보
이잇 면팬츠
22500(단종)

Q. 나에게 패션이란? 제 2의 나라고 생각하구요. 그 이유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제일 먼저 판단하니까! 제 내면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가장 애용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애용하는 브랜드는 '크로스트 레슬리'구요. 디자인 브랜드예요! **Q. 평소 옷 입는 스타일** 스키니진 같이 몸매를 부각시키는 스타일을 싫어해서 주로 박시하고 편하면서 멋을 낼 수 있는 밝고 강렬한 색의 맨투맨을 주로 입는 편이구요. 바지는 약간 통 넓게 입어요. **Q.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저는 키가 작아서 좀 세보이고 싶기도 하고, 평소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원 같은 정장스타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Q. 최근 가장 아끼는 옷** 가장 아끼고 자랑하고픈 옷은 사진에 있는 파란색의 크로스트레슬리 후드티인데요! 워낙에 강렬한 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거금을 들여 큰마음 먹고 산거라 굉장히 애착이 가는 옷이에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패션은 이름만큼이나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을 과감히 도전해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자금이 우리 생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지고 젊은 날이니까요!

[취재/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동아리탐방] 진주고 수학동아리 수나누미

따분하고 재미없는 수학이 아닌... 수학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나누어 주고 싶어요.



▲수나누미 부장 강민창 학생

Q: 수나누미라는 이름이 참 이쁘네요. 동아리 소개를 해주세요.

A: '수나누미'는 학교에서 배우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수학이 아닌 체험수학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보고, 수학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이름인 '수나누미(美)'는 '수학의 아름다움(美)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Q: 동아리 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매주 주어진 동아리 시간에는 주로 외부 봉사 활동을 나가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아리실 내에 비치된 수학교구를 가지고 선후배가 함께 연구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을 파이데이, 11월 8일을 수학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수학교구와 아이디어로 수학체험전을 엽니다. 이 행사들이 학교에서 꽤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2~3주 전부터 행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팀을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 수학과 관련된 TED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쓰고 동아리 부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 등을 합니다.

Q: 매주 동아리 부원들이 모여 외부 봉사 활동을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A: 진주시내 초, 중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후배들에게 체험을 통해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해 주고 스스로 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미니수학체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체험전에 참여해 수학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국수학체험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동아리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제가 부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봉사에 치우치던 동아리 활동을 탐

구와 교육으로 이원화하여 수학동아리 활동을 전문화하고자 합니다.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고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 소논문 작성을 목표로 하는 '탐구트랙', 학교 진도에 맞추어 단원을 나눈 뒤 본인이 맡은 단원 중 어렵거나 실수하기 쉬운 문제를 선정하여 친구들 앞에서 설명함으로써 가르치면서 성적 향상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교육트랙'으로 동아리 활동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트랙은 대학진로와도 연계하여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등과 같은 자연대나 공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탐구트랙'에 주력하고, 수학교육과와 같이 사범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 '교육트랙'에 주력하여 동아리 활동으로 원하는 대학의 전공 적합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미니수학 체험전을 진행하는 모습



▲수학의 날, 교내 수학 체험전을 실시하는 모습

A: 봉사와 탐구로 수학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수나누미'가 될 것입니다. '수나누미'는 앞으로 진주고 최고의 동아리가 될 것이고, 누구나 들고 싶어 하는 그런 특별한 동아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취재/ 김찬유(진주고2)기자]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 진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동아리 '수나누미' 부장 강민창입니다.

[체험 리얼현장] 청소년 알바 현장을 가다

알바도 능력이지? 그전에 알아야지!

학생들도 직접 돈을 벌 수 있다. 관심이 딱! 바로 아르바이트다. 아르바이트의 의미,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라 정리되어 있다. 모든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

는 건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 중 한 두명씩은 그 특별한 천국과 통하고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일하고 소득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알바에 대한 리얼한 이야기들에 귀기울여 보자.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삼현여자고등학교 3학년 한경연입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용돈도 더 필요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친한 언니가 옛날에 하던 곳 이어서 소개로 들어가게 됐어요.

Q.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가족들은 '그래...알바라도 해보고 돈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아니면 '아직 어린데 무슨 알바냐'로 나뉘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은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중3 첫 알바를 했을 때 소문도 났었네요.ㅋㅋ 개 알바 한다던데! 어떻게 구한거래?! 이런 식으로...? 그 때는 어려서 알바 구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Q. 현장에선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서빙과 카운터 업무를 주로 하고, 마감청소도 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밌었거나 특별했던 일이 있었나요?
A.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친하고 편안한 분위



기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알바하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팁 받을 때 제일 재밌어요. 하하

Q. 아르바이트를 할 때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A. 남들 중에 많이 취하신 분들이 가끔 무례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불쾌하죠. 자주는 아니고요. 아주 가끔! 대부분 친절하세요.

Q. 첫 급여를 받았을 때 느낌을 어떠했나요? 그리고 어디에 쓰셨나요?

A. 첫 알바비를 받았을 때는 중3 때 이었는데 참 신기했죠.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싶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는 더 철이 없을 때라 저축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렸던 것 같아요. 아 가족들에게도 7만 원 정도 드렸었어요.



Q.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대!
A. 생각보다 힘들지만 재밌기도 해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하는 게 편하긴 하죠. 하하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어딜 가시면 알바 생들에게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친절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ㅎㅎ

차별받는 청소년 알바, 알 바 아니다?



알바 시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당 8,350원이다.

청소년 알바생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들이 알바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알바 역시 우리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학생들 스스로도 '알바 10계명'을 숙지하여 자신이 땀 흘리고 일한 것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찾았으면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

1. 알바 가능 나이
알바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으며, 만 15세 이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2. 부모님 동의받기
알바시에는 부모님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청소년증 등)를 제출한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다.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어른과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받기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수습의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1년 미만 단기 근로 시에는 수습 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5. 근로시간 주 40시간 보장받기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동의가 필요하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고용센터 인가없이 불가능하다.

6. 초과근무시 50% 가산임금받기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7. 유급휴일 챙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에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는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는 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시, 처벌받을 수 있다.

8. 위험 및 유해업종 근무하지 않기
위험한 일 또는 유해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불가능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 오락실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9. 다쳤을 땐 산재처리하기
근무 중에 다쳤을 땐 산재처리를 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부당대우시 상담받기
일을 하다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TIP. 사례로 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처법



일 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얘기했던 것과 다른 조건에서 일을 하거나 계약과 상관없이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황별 대처 방안을 살펴보자.

1. "설령탕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근무 시간과 시급을 결정했고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먼저 작성하자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막상 일을 시작하니 연말연시에 바빠다며 정해진 시간 외에도 근무를 요구합니다. 또 아르바이트비를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 조건은 임금과 시간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합치가 중요합니다. 동의 단계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는 사업자도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은 유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입증에 위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되도록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존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것을 권합니다. 전화로 얘기할 경우 녹취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고깃집에서 3개월간 일하기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난 후 갑자기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지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고 해고 사유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동안의 아르바이트 비를 입금했다며 도리어 화를 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그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단,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전화 1644-1339 · 카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 상담 youthlabor.co.kr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3. "일하는 곳의 남자 직원들이 '고3 때는 살찐다는데 너는 다이어트 열심히 했나 보다' '너만 보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다' 등 애매한 말을 던지며 수군거립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은 아닌데 몹시 불쾌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첫째, 당사 상대방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둘째,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며 셋째, 법적 다툼에서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의사표시 유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나 주장법 3요소(나의 행동 + 내가 받는 영향 + 내가 갖는 느낌)'에 따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막상 불쾌한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평소에 '나 주장법 3요소'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연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희롱이라는 판단이 서면 여성법률노동 지원센터(전화 0505-515-5050 · 온라인 게시판 yeono.org)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취재/ 광명규(진주고2), 허윤지(삼현여고1)기자]

[필통뮤직차트] 청소년 평점 봄노래 CHART!

봄! 봄바람을 맞으며 듣기 좋은 노래 TOP 9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여러분! 들리시나요? 봄이 오는 소리요! 파릇파릇 새싹이 피는 소리, 개굴개굴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기지개 켜는 소리,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교실에 앉아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나 봐요~! 그래서 필통이 아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잘 어울리는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 9곡! 이 노래를 들으며 친구 혹은 가족, 연인과 행복한 꽃놀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Top9 순위 결정은 어떻게?

①필통기자단에게 봄이면 떠오르는 노래를 추천받음 ②9곡을 선정하고 모든 기자가 9곡 모두 선곡을 듣고 평가함. ③가수와 장르, 그리고 개인의 음악적 취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노래 그 자체만을 듣고 필통기자단 22명이 각 곡에 평점을 제출(평점은 10점 만점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통일함) ④9곡의 평균 평점을 구해 순위를 결정함.
(※ 본 순위와 평점은 필통 기자단의 평가로 시중의 음악 차트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1위 벚꽃엔딩 - 버스커버스커 (평점: 8.5)

“몇 년째 듣고 있는데 하나도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9곡의 노래 중 봄을 위한 곡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봄이라는 계절을 가장 잘 나타낸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봄 특유의 나른함과 따스함, 또 낭만적인 그 무언가. 그걸 가장 잘 나타낸 노래이기에 몇 년이나 지났어도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받는 것 같아요.”



2위 봄봄봄 - 로이킴 (평점: 8.2)

“이 노래를 들으면 신이 나고 들뜨게 돼요. 다른 노래들은 거의 다 간질간질하거나 잔잔한데 이 노래는 뭔가 사람들 들썩이게 하는 명량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도 봄을 노래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어서 아 정말 좋은 노래구나 했습니다. 슬쩍 알려드리는데 제 평곡 중 하나예요.”



공동 3위 우연히 봄 - 로꼬, 유주 & 봄인가 봐 - 에릭남 (평점: 8.0)

“우연히 봄ㅠㅠ 완전 제 스타일ㅠㅠ 랩 부분도 좋고 유주 목소리 너무 좋아요!”
“우연히 봄 멜로디 자체가 상큼하고 재밌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음.”

5위 봄 사랑 벚꽃 말고 - 아이유, 하이포 (평점: 7.9)

“봄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듣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다가오는 봄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아이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들을 때마다 괜히 제가 다 콩닥콩닥해진다니까요^^”
“내 얘기 같아서 공감 100%. 진짜 가사처럼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진다.”

공동 6위 : 봄을 그리다 - 어반자카파 & 봄날 - 방탄소년단 (평점: 7.8)

“봄날~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고, 뭔가 산뜻하고 발랄한 느낌이 아닌 아련하고 따뜻한, 왠지 모를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든다. 단지 아이돌의 노래라고 치부하며 걸러들기엔 그 감정과 분위기가 참 아까운 노래.”
“노래 제목인 봄날이 꼭 계절만을 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들어도 좋을 것 같지만 굳이 노래 분위기를 계절로써 표현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기, 쌀쌀하면서도 햇볕은 따뜻한 딱 그 시기에 길을 걸으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반자카파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고, 곡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날이 좋은 봄날, 카페에 앉아 풍경을 구경하며 듣기 제일 좋은 노래인 것 같다.”

8위 봄이 좋냐 - 10cm (평점: 7.7)

“커플들을 부정하는 저항정신에 감동하는 동시에 봄의 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9위 봄날의 기억 - 비투비 (평점: 6.9)

“중간에 랩 부분이 재치가 있어 노래가 질리지 않는다.”

순위	노래명	가수	평균평점	앨범 발매일
1	벚꽃엔딩	버스커버스커	8.5	2012.03.29.
2	봄봄봄	로이킴	8.2	2013.04.22.
3	우연히 봄	로꼬&유주	8.0	2015.04.08
	봄인가 봐	에릭남&웬디	8.0	2016.03.04
5	봄 사랑 벚꽃 말고	아이유&하이포	7.9	2014.04.08
7	봄을 그리다	어반자카파	7.8	2011.05.17
	봄날	방탄소년단	7.8	2017.02.13
8	봄이 좋냐	10cm	7.7	2016.04.01
9	봄날의 기억	비투비	6.9	2016.03.28

[필통실험실] 써봤나요? 허클리너

입 냄새와 백태현상 없애는 허 클리너, 여러 제품을 직접 써 봤어요~

허클리너란??

혀를 닦아주는 도구로, 입 냄새의 원인 중 60%를 차지하는 것이 혀에 낀 설태인데 이것을 깨끗이 제거해 주는 도구입니다. 건강한 혀는 보통 엷은 분홍색 혹은 약간 흰색이 섞인 분홍색을 띠는데, 혀의 입천장과 닿는 쪽인 표면의 전체 혹은 넓은 부위에 걸쳐 하얗게 혹은 검게 변하거나 털이 난 것처럼 보이는 증상을 설태라고 합니다. 주로 흰색이나

회백색, 혹은 누런 빛을 띠는 흰색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백태라고 합니다.

허클리너 외의 백태, 설태 제거방법은...?

1.꼼꼼한 양치질 2.입안 내 수분가지기 3.가글사용 4.흡연자제 5.녹차 마시기 6.균형잡힌 영양식사



사용 후 추천순위

닥터팅스 > 커먼하우스 > 약국 > 덴티스테

구분	가격	온라인/오프라인	추천	구역질 여부
약국	2,000	오프라인(약국)	3	O
커먼하우스	2,000	온라인(커먼하우스)	2	O
덴티스테	3,900	오프라인(롭스)	4	O
닥터팅스	10,000	오프라인(롭스)	1	X

<솔직 사용후기>

-약국에서 구매한 것은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잡이와 혀를 닦아주는 사이 부분이 흔들거려 혀를 닦을 때 고정되지 않아 혀에 있는 설태를 제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약국마다 판매하는 제품 다름

-커먼하우스에서 구매한 허 클리너는 45 '로 굵혀져 있기 때문에 혀의 안쪽 부분까지 닿아 혀를 구석구석 닦을 수 있습니다. 혀를 닦는 날 부분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 잘 닦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광고 하던 만큼의 효과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에 자주 출현

-덴티스테 제품은 흔들거리지는 않았지만, 사용을 하고 나서 백태가 제거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혀를 마사지 해주는 느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을 시에 아팠습니다. 허 클리너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생각보다 별로

-닥터팅스 제품은 인터넷에서도 유명하네.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비싼만큼 잘 닦이고, 보관할 수 있게 주머니도 들어있습니다. 좋은 점이 사용했을 시에 헛구역질이 나지 않아 거부감 없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무겁고 비싸고, 깊이 닦지 못한 것입니다. ※네이버에 허 클리너 치면 자주 출현

<혀 색깔, 혀로 보는 건강상태>



선홍색 > 건강

창백 > 빈혈

붉은색 > 심장에 열이 많아

갈색 > 위장병

청자색 > 호흡 및 순환기장애

흑색 > 항생제 과다 복용

[취재/ 김세희(선명여고2)기자]

[필통번역실] 아리아나그란데의 'thank u, next'

맥도날드에서 주문받는 서버가 쓰는 표현 감사합니다 다음 분!

필통의 새로운 고정코너다. 요즘 K-POP이 대세이긴 하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전히 팝송을 좋아하고 흥얼거리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팝송 뿐 아니라 외국 아티스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필통번역실>이 나섰다. 팝을 비롯한 유명한 외국 노래의 가사를 우리 노래처럼 한글 가사로 옮겨 보도록 하자.



노래듣기



아리아나그란데의 'thank u, next'



1964년 비틀즈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2위, 3위를 동시에 거머쥔 뒤 역사상 2번째로 빌보드 차트 순위 1위, 2위, 3위를 차지한 아리아나 그란데의 'thank u, next'의 가사는 어

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thank u, next는 2018년 11월 3일에 싱글 앨범으로 처음 발매됐고 2019년 2월 8일에 정규 앨범 5집에 수록되어 발매됐다. thank u, next에는 자신들의 전 남자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전 남자친구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들과의 교제로부터 느낀 감정들과 그로 인한 자신의 성장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Sean은 Big Sean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래퍼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한 경력이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전 남자친구이다. 헤어질 때쯤에 아리아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것이 결별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

Ricky(Ricky Alvarez)는 Ricky 아리아나 그란

데의 백댄서로 도넛 사건(아리아나가 자신이 주문한 도넛이 따뜻하지 않자 다른 도넛에 침을 뱉은 사건) 당시 같이 있었다고 한다.

Pete(Pete Davison)는 미국 SNL에 출연하는 코미디언으로 아리아나 그란데가 공연을 하던 공연장에서 폭탄 테러를 당한 일을 개그의 소재로 써서 논란이 되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약혼까지 했었으나 결별을 하게 되는데 결별도 개그의 소재로 써서 논란이 가중되었다.

Malcolm(Mac Miller)은 유망한 래퍼였고 서로의 스케줄 때문에 결별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하지만 결별 후에도 친구로 지냈으나 약물

중독 때문에 2018년 9월 7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연애사를 실명을 담아 옮긴 곡이 Thank U, Next. 사실 맥밀러 빼고는 아리아나는 연애기간도 짧고 어릴적부터 활동한 탓에 가사에 등장한 4명의 남친 이외에도 가십을 뿌리고 다닌 남친들이 대여섯명이 더 있다. 그래서 그녀의 연애를 패스트푸드에 비유하는 조롱이 많았는데 이에 아리아는 아예 내놓고 흔히 맥도날드에서 주문받는 서버가 주문 다 끝나면 쓰는 표현을 가사로 옮겨 버렸다. Thank U, Next '감사합니다. 다음 분~'



[가사 번역]

Thought I'd end up with Sean
선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But he wasn't a match
그와는 잘 안 맞았어

Wrote some songs about Ricky
리키에 대한 노래도 썼는데

Now I listen and laugh
이젠 들으면 웃음만 나

Even almost got married
결혼까지 할 뻔 했는데 말야

And for Pete, I'm so thankful
피트에게는 그저 고마울 뿐이야

Wish I could say, "Thank you" to
Malcolm
말콤한테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으
면 좋았을텐데

'Cause he was an angel
되게 착했거든

One taught me love
한명은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고

One taught me patience
한명은 인내심을,

And one taught me pain
그리고 한명은 내게 고통을 가르쳐줬
어

Now, I'm so amazing
그 결과 지금의 내가 있게 된거야

I've loved and I've lost
사랑을 하고 잃기도 하면서

But that's not what I see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So, look what I got
내가 뭘 얻었는지 보라고

Look what you taught me
네가 내게 가르쳐준 게 뭔지

And for that, I say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해

Thank you, next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Thank you, next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Thank you,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I'm so fuckin' grateful for my ex
내 전 남친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Thank you, next (Next)
Thank you, next (Next)
Thank you, next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I'm so fuckin'...

Spend more time with my friends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냈어

I ain't worried 'bout nothin'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Plus, I met someone else
그리고 난 다른 누군가를 만났지

We havin' better discussions
예전보다 좀 더 나은 대화를 하고 있
어

I know they say I move on too fast
사람들은 내게 너무 빨리 다른 사람
을 만난다고 하지만

But this one gon' last
앞으로도 계속 그럴거야

'Cause her name is Ari
왜냐면 난 아리아나니까

And I'm so good with that (So good

with that)
그녀는 엄청난 사랑꾼이거든

She taught me love (Love)
그녀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고

She taught me patience (Patience)
인내심을 가르쳐줬고

And she handles pain (Pain)
고통을 이겨내는 법도 알려줬어

That shit's amazing (Yeah, she's
amazing)
이 모든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

I've loved and I've lost (Yeah, yeah)
사랑을 하기도 하고 잃어도 봤어

But that's not what I see (Yeah,
yeah)
하지만 그런건 아무래도 좋아

Just look what I've found (Yeah,
yeah)
덕분에 내가 얻은 것을 좀 봐

Ain't no need for searching, and for
that, I say
찾을 필요도 없지, 난 이렇게 말할거
야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Thank you, next (Thank you)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I'm so fuckin' grateful for my ex
내 전남친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Thank you, next (Said thank you,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Thank you, next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I'm so fuckin' grateful for my ex
내 전남친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I'm so fucking...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One day I'll walk down the aisle
언젠가 나도 결혼을 하게 되겠지

Holding hands with my mama
엄마의 손을 잡고

I'll be thanking my dad
아빠에게 감사하면서

'Cause she grew from the drama
왜냐면 우리 엄마는 드라마 같은 삶
을 살아오셨거든

Only wanna do it once, real bad
그저 한번만 더 사랑을 하고싶을 뿐,
미치도록

Gon' make that shit last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God forbid something happens
제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래

Least this song is a smash (Song is
a smash)
적어도 이 노래 하나는 끝내주잖아?

I've got so much love (Love)
난 사랑을 배웠고

Got so much patience (Patience)
인내심을 가지는 법도 배웠고

I've learned from the pain (Pain)
지난날의 상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

어

I turned out amazing (Turned out
amazing)
그 결과 지금의 내가 있게 된거야

I've loved and I've lost (Yeah, yeah)
사랑을 하고 잃기도 하면서

But that's not what I see (Yeah,
yeah)
하지만 그런건 아무래도 좋아

Just look what I've found (Yeah,
yeah)
지금의 나를 좀 봐

Ain't no need for searching
자세히 볼 필요도 없지

And for that, I'll say
난 이렇게 말할 거야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I'm so fuckin' grateful for my ex
내 전 남친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Said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Next)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I'm so fuckin' grateful for my ex
내 전 남친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Yeah, yee
고마웠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

[글로벌미팅] 경상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응웬티푸농웅

삼성 LG의 나라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외국인들을 무시 말고 친절히 대해 주세요^^



〈한복을 입은 응웬티푸농웅〉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그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필통이 발 벗고 나섰다. 진주지역에도 이제 흔하게 외국인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나라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벌미팅',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을 만나서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해당 나라에 대한 소소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의 외국인인 '응웬티푸농웅'이라는 이름의 22살 베트남 유학생이다. 최근 박항서 신드롬과 2차 북미회담으로 핫한 그 베트남속으로 들어가 보자.

Q.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응웬티푸농웅이라고 하고 올해 22살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2년 정도 됐고 지금은 경상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 온 계기가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글로벌 그룹인 삼성, LG가 유명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Q. 베트남 음식 추천 해주세요.

A. 대표적으로 쌀국수가 있고 또 차례 때 먹는 쌀로 케익을 만든 전통음식도 있어요. 쌀국수가 유명하지만 쌀국수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요.

Q.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A.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또 베트남에서도 한류가 유명합니다.

Q.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A. 저는 딱히 없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의사소통이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었다고 들어있어요. 한국어도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 배웠지만 물어 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학원에서 더 공부했어요. 문화차이도 많죠.

Q.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 뭔가요?

A. 여학원에 다니면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대구, 통영, 순천, 부산 등에 가서 한국문화도 배우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베트남에는 동전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A. 옛날에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폐가 동전보다 더 편리하기도 하고, 동전이 작다보니 아기가 삼킬 위험이 있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폐에는 여러분들도 알만한 베트남의 국민영웅 호치민씨가 그려져 있어요. 한국과 다르게 모든 지폐에 같은 인물이 있답니다.

Q. 베트남과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베트남도 교육열이 뜨겁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한국에 비해 베트남은 공부를 너무 안 시켜서 교육의 질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독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Q. 요즘 베트남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A. 경영인, 의사, 선생님, 가수 등 다양해요. 요즘은 경찰, 컴퓨터 관련 직업, 건축가가 등이 인기가 많습니.

Q. 베트남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A. 네~ 일단 베트남 학생들은 1교시 수업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같아요. 한국 학생들의 경우 1교시라 하면 보통 9시에 시작을 하는데 베트남은 6시 30분 부터 시작을 해요. 날씨가 영하가 크죠. 보통 11시 반까지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동안 이것저것 많은 활동도 하고 각자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도 해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한국처럼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Q. 베트남은 방학이 더 길다고 들었는데?

A. 한국과 다른점은 베트남은 겨울방학은 짧아요. 2주 정도. 근데 여름방학이 대신 무지 길죠. 3개월이 넘어요. 근데 한국은 학교출석만 하면 졸업을 시켜주잖아요? 베트남은 고등학교도 졸업시험 성적이 나쁘면 졸업장을 주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10% 정도는 졸업을 못해요.

Q. 베트남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한류스타는?

A. 한국 아이돌 그룹이나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이한 건 런닝맨 이광수가 진짜 인기가 높아요. 저번에 총리랑 식사도 했



〈여학원에서 체험학습 갔을 때 찍은 사진〉

다
고
하
더
라
구
요.
그
리
고
가
수
비
는
옛
날
부
터
베
트
남
에
서
는
최
고
스
타
예
요.

Q. 베트남에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고?
A. 그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예전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들어 왔잖아요. 당시

에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을 싫어 한다기보다는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를 바라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Q. 한국에서의 꿈이 있나요?

A. 지금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한 뒤 글로벌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호의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시하지마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생 분들은 지금이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이니깐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웬티푸농웅을 통해 들여다 본 베트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수도는 하노이이고 사회주의 국가로 공용어는 베트남어다. 베트남까지는 비행기로 5시간 거리, 시차는 2시간 차이다. 베트남의 아침은 오토바이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라는 말처럼 요란한 오토바이의 하노이 시내 광경은 베트남하면 떠오르는 장면중 하나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 메콩강이 있는 나라. 사회주의 국가인관계로 우리나라와는 뒤늦게 1992년 수교. 베트남전쟁 당시 외화벌이를 위해 미국을 도와 참전한 역사가 있는데 당시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민간인을 죽인 사건으로 우리정부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쌀의 왕국, 트레이드마크 아오자이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바로 쌀. 쌀이 많이 나는 나라답게 쌀국수 쌀 종이, 쌀과자, 쌀 케이크, 쌀로 빚은 술, 심지어 쌀로 만든 인형까지 가히 쌀의 왕국이라 불릴 만하다. 베트남의 대표음식 쌀국수는 이젠 우리나라도 즐겨먹고 잘 알려진 음식이다.

영화등에서 자주 봤던 베트남의 전통의상, 바로 아오자이. 베트남의 트레이드마크다. 핑클



한 바지와 몸에 꼭 달라붙는 긴 옷이 한 벌인 아오자이. 지금은 여학생들의 교복으로, 결혼식 예복, 공식행사 때 입는 정장으로 즐겨 입는다고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서 웬만한 집엔 다 노래방기기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 재미난 뉴스. 베트남은 요즘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난리란다. 옛날 우리처럼 말이다. 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정관수술 하면 장려금도 준다고 한다.

남녀공학, 중학교의 진학율 37%, 고등학교는 28%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직장 여성이 많기 때문에 유아원, 유치원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베트남의 모든 교육 과정이 남녀 공학이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은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 초등학생은 파란 바지에 흰 와이셔츠, 빨간 머플러를 두른다. 중고등학생 교복은 머플러를 두르지 않고 바지와 흰 셔츠 차림이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베트남 전통 복장인 흰색 아오자이(Ao dai)를 입는다. 특히 흰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선생님들은 원칙적으로 학생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학기 시작은 9월초이며, 다음해 1월 중순에 끝난다. 그리고 한 달을 쉬고 음력 설 1주 후(2월 중순)에 2학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6월말까지 수업을 하면 1년 과정이 끝난다. 중학교의 진학율은 대략 37%, 고등학교는 28%정도로 추산된다.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가 있다. 대학 입시는 대학별로 실시되며 대개 같은 계열의 대학이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은 무제한 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내신과 모고사의 비율은 50:50 정도이다. 고등학생 중 약 30%가 대학에 간다. 베트남 국민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며,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부담,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대학 입시 경쟁률도 치열해 고교 졸업반에는 대체로 입시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취재/ 진서영(삼현여고1)기자]

‘인싸’가 아니어도 괜찮아!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그럴싸’ 한 사람이 되자

요즘 사람들은 마치 ‘인싸’가 되기 위해서 허덕이며 사는 듯하다. 인싸란 ‘인사이드’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인사이드’를 세계 발음 하면서 다소 변형한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 인싸는 인싸렘, 인싸음식, 인싸춤 등의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싸가 되는 법’이나 ‘인싸·아싸 테스트’와 같은 게시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흐름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에게도 이어지는데, 대학생 사이에서는 ‘새 학기 인싸 되는 법’도 등장했다. 10~20대 사이에서 인싸가 되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다 보니, 인싸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수많이 쏟아지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을 휩쓴 유행어’ 탑3 안에 들 정도로 작년부터 한국은 ‘인싸’ 붐

이었다. 인싸의 대표적인 것으로 토끼모자, 에어팟, 인기가요 샌드위치, 오나나나춤 등이 있다. 이것을 얻거나 하기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돈까지 아낌없이 투자한다.

흔히 말하는 ‘인싸’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인싸템을 가지고 있고 인싸춤, 인싸포즈를 할 수 있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싸가 되고 싶어 한다. 때문에 인싸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스스로 혼자 뒤처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소속감을 가지려는 심리적 압박을 받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아싸는 ‘아웃사이드’라는 뜻으로 인싸의 반대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싸라는 소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싸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인싸들은 행복할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인싸’와

‘아싸’로만 나뉘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처럼 ‘인싸’라는 개념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인정받아야 할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지도록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이 불법적인 평가는 상대방을 실제 모습과 다르게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싸처럼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만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넓게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깊게 친구를 조금 사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인싸들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억지로 ‘인싸’ 혹은 ‘아싸’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그 점을 강점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싸와 아싸의 기준이 명확한 것



도 아니다.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는 것에 왜 우리는 엄매여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는 걸까? 지나고 보면 연연할 필요 없는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세상이 말하는 ‘인싸’가 되기 위한 정해진 조건을 좇지 말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 인정해주면 어떨까? 꼭 인싸가 아니어도 괜찮다. 인싸도 아싸도 아닌 ‘그럴싸’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 좋지 아니한가.

[취재/ 민세진(진주제일여고2)기자]

누구인가, 누가 내 쉬는 시간을 가져갔는가?

교과교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과교실제,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별 특성에 맞춘 전용 교실을 설치해 교과별로 학습환경을 꾸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참여형 활동수업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학생은 개인 사물함에 짐을 두고 시간표에 따라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다. 교과 교사가 각 교실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급교실제보다 전문성이 확대되며 교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제도는 결국 문제점들만 쌓여 갈 뿐이다. 실제 학교에서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과교실제는 어떨까?

중,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다. 하지만 쉬는 시간 10분 안에 매번 홈 베이스에서 교과서를 챙겨 각 교실로 이동하기엔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 쉬는 시간은 계속되는 수업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다음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또는 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달콤한 쪽잠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교실제로 인해 화장실을 가거나 선생님의 심부름을 가기만 해도 수업에 지각하기 일쑤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은 이유를 듣지도 않고 늦은 학생들을 무단 지각(비인정결) 처리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 10분을 교과교실제에 빼앗긴 꼴이다.

현재의 교과교실제는 유명무실이나 다름없다. 매 시간마다 교실이 바뀌기는 하지만, 교실 내부 구성은 똑같다. 수업 방식 역시 교과교실제가 시행되기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쉬는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고, 매 시간마다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은 변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한 교실을 여러 학년이 나눠서 사용하게 되니 분실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우열반 형식으로 편법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교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점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교는 넓고, 교실은 멀고, 쉬는 시간은 전과 다름없으니 동선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교실을 이동하고 책을 챙기는 데 쉬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게 된다.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니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려면 제대로 된 운영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을 10분에서 15~20분으로 늘리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는 등의 학생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제공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학생들의 요구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 박서진(진양고1)기자]

내꺼인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너

학교 시설물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보자

또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새로운 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기본 좋은 긴장감 혹은 설렘을 느끼게 한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나 물건들이 있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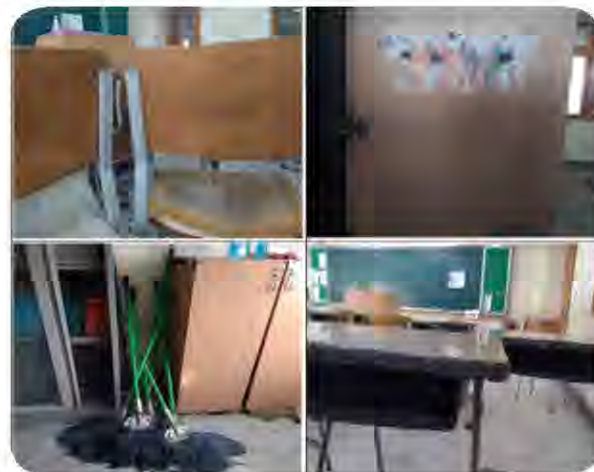
새로워진 환경에서 거의 1년 동안은 사용할 공동시설물뿐 아니라 책걸상과 같은 개인을 위한 시설물과 마주하게 된다. 누구나 자신이 사용하게 될 책걸상 또는 사물함 등의 상태가 깨끗하길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아마도 학교나 교실 곳곳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생들의 무책임한 장난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배려가 실종된 학생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특정 학교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진주시 관내에 있는 한 남자 고등학교의 책걸상들을 보면 심한 낙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낙서에서부터 성적인 의미를 담은 낱뜨거운 낙서까지 그 종류 역시 다양하다. 이는 책상을 이용할 학생뿐만 아니라 그 낙서를 보게 될 다른 학생들까지도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또 책상 모서리에 붙어 있는 고무 패킹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의적인 도구의 사용 없이는 일어나기 불가능한 훼손이다. 날마다 이런 책걸상을 써야 하는 학생의 마음은 분통이 터진다.

책걸상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물함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연출된다. 보기 싫은 낙서는 기본이며 이리 저리 패인 칼자국도 발견 된다. 심지어 내부에 사진을 붙여놓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보기 흉한 상태가 된 사물함도 적지 않다. 반드시 다음에 사용할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해도 학생들의 몫이다. 그때마다 모든 책걸상을 교체할 수도 없고 사물함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훼손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청소도구 등 함께 쓰는 공공시설물이나 물건들 또한 결국 학생들이 사용해야 한다. 오늘의 잘못된 나의 인식과 행동이 내일 내 친구에게 그대로 피해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다.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부터 한시적이지만 학생들 개인을 위한 시설이나 집기들이 있다. 모두가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이 필요하지만 온전히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도 곤란하다. 학교 내 곳곳에서 발견되는 파손, 훼손된 학교 시설물이나 물건들은 반대로 주인 의식은 없고 공공시설물을 지극히 자신의 개인 물건처럼 대하는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이 낳은 결과다.



물론 학생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 시설물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시간이 이어지고 추억이 전해지는 공간이다. 학교 시설물에는 과거가 현재로 또 미래로 그 학교의 역사가 고스라니 담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으로 인상 찌푸려지는 추억과 흉한 상처만 가득한 학교 시설물들이 늘어가는 안될 것이다.

날마다 쓰는 분명한 내 것이다. 진정으로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루자. 그리고 또 내 것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 후에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며 빌려 쓰는 마음을 가지자. 우리가 학교의 모든 것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취재/ 광병규(진주고2)기자]

학교내 무상으로 생리대 비치를 의무화해야

학생들의 생리대 요구는 인간의 기본권, 예산 마련 시급하다

여학생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 생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발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리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자신의 주기를 잘 모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생리대를 소지하지 않거나 깜빡 잊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리를 하게 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생리대를 빌리게 된다. 여학교에서는 그다지 절고려운 일이 아니지만 남녀공학에선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학교 보건실에 항상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실에 온열 패킹 진통제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제일 필요한 생리대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 비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무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무상이더라도

몇 번 반복되면 눈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달 어김없이 생리통에 시달리고 귀찮게 생리대를 착용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고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이상 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상 생활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통증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뒤따른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사회 생활속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 또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의 생리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이 임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류가 유지 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생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종족번식을 위해 생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암컷은 임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가족제도와 사회제도를 만들면서 여

성들이 생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여성의 생리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생리대 예산을 마련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도 없을 듯하다. 물론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100% 지급해 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에서 눈치 안 보고 생리대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건실뿐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면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엔 학생들의 마구잡이 이용이나 사재기식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지급 방식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따라 좋은 제도로 자리 잡히게 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해부터 여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학교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화장실, 각 교실에 비치한다고 한다.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가능한 제도임을 보여준다. 우리 경남도 하루 빨리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아니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취재/ 진가희(진주중앙고2)기자]

누군가 내 폰을 감시한다면?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통제한다고 진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2015년 4월 16일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나 피해를 막고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유해정보차단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은 SKT, KT, LG U+ 및 알뜰폰 가입자 모두 포함된다. 앱은 반드시 1종 이상 깔아야 하며 탈옥 및 루팅, 어떠한 방법으로든 앱을 삭제하면 15일 후 부모에게 자동으로 통보 된다.

새 학년 시작과 함께 초·중·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부모의 스마트폰 통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늘고 있다. 특히 이용시간 제한, 앱 사용 현황 확인, 문자·동화·검색기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앱'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소년이 음란물에 무

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따돌림과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 앱은 해로운 사이트의 차단이 전부가 아니다. 사이버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들을 감지해 부모에게 연락을 주기도 하고,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하게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위치정보조회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쯤 되면 청소년들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CCTV를 달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심의(차단)제도의 논란이다. 어디까지가 유해한 사이트고, 해로운 단어인지

그 판단성이 모호한 경우에 대한 대비부족이다.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달라는 문자에 걸취가 의심된다며 친구 부모님께 연락이 간 사례만 봐도 황당한 차단이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에 욕설이 심하게 담긴 한 유튜브가 차단 없이 재생되는 것도 심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 청소년의 왕성한 호기심과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라면 이런 통제 시스템보다는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앱을 동반한 건전한 '청소년 휴대폰'이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감시 휴대폰'이 나 다름없다. 청소년을 위한다는 말로 그들을 통제하게끔 되어 있는 이 법이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소년들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를 뺏는다는 생각도 들것이고 내 폰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 것이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된 스마트폰, 과연 언제까지 유해물 차단앱이라는 물리적인 통제가 정당이라고 우길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취재/ 진서영(삼현여고1)기자]

3.1운동 100주년 여전히 학교에는 일제 잔재

학교내 친일 잔재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그리고 해방 74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주의 망령과 그들이 할퀴어 놓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아파하고 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현대사를 돌추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 일제 잔재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바로 학교다. 적어도 이제 모든 채 지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없애고 바꾸고 고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얼마 전 있었던 졸업식때 교복을 훼손하는 뒷풀이와 교실 칠판 위에 있는 태극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찢는 모습을 보고 한다. 일제시대 때 학생들은 일본식 교복을 입어야 했기에 졸업을 함으로써 교복을 더 이상 입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교복 찢기와 밀가루 뿌리기로 분출 한 것이 유래가 된 졸업뒤풀이는 결코 웃으며 넘어가선 안 될 슬픈 역사가 숨어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 속에서 항상 교실 칠판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액자 안에 넣어서 게시해 놓은 학교들이 많았다. 이것은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장기를 액자에 넣어 게양했던 것에

서 유래 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깥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일제잔재의 하나로 꼽히는 운동장 조희대(구 령대)도 지금도 위풍당당하게 운동장을 지키고 있다. 성적표기 방식으로 '수-우-미-양-가'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전 국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데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 다면 학생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식민지 잔재청산문제는 더 깊은 곳까지 스며있다. 식민지시대 교명을 그대로 쓰고 있는 학교가 너무 많다.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니, 동중, 서중, 중앙고, 제 1고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은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라는 것에서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 다.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깥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 시간 혹은 평상시에도 일제강점기를 배우거나 일제잔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100면 10명 모두 다 그 당시를 떠올리며 분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친일 청산도 중요하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린 학교 속에 숨어 있는 식민지시대의 흔적을 살펴보고 적은 것부터 바꾸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취재/ 정병훈(진안고2)기자]

[JOB을 잡아라] 아트빈 커피 윤상규 바리스타를 만나다

"전문가는 그냥 되지도 않고, 괜히 있지도 않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아트빈 커피와 커피 아카데미, 로스팅 룸을 운영하고 있고 로스팅을 한 원두를 납품도 하고 카페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는 바리스타 윤상규입니다.

Q. 바리스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바리스타는 영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탈리아어입니다. 바 안에서 음료를 만드는 사람이 더 있죠. 주류를 만드는 바텐더. 바리스타는 바 안에서 커피를 만들고 최대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커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다른 커피 관련 직업은 콩을 직접 볶는 로스터도 있고요. 콩의 맛을 다양하게 섞는 블렌더라는 직업도 있고 품질을 관리하는 Q.C도 있어요.

Q. 바리스타의 길로 들어 선 계기가 있나요?

A. 원래 제 꿈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동차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포트폴리오까지 준비를 하고 아트센터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때 유행했던 것

이 스타벅스죠. 밥 보다 비싼 커피, 된장남 된장녀 이런 단어가 나올 때였어요. 그런 브랜드의 커피숍을 가지고 싶었기 보다 내 커피 브랜드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 때부터 바리스타의 길로 들어섰지요. 처음에는 라떼 아트 때문에 커피에 관심을 가졌는데 다음으로는 커피콩을 볶는 로스팅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11년이 되었네요.

Q. 직업으로서 바리스타의 매력은 있다면?

A.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라떼아트 뿐만 아니라 콩을 직접 볶아서 그 콩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발현시키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커피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맛을 끌어냈구나' 하고 성취감을 얻어요. 다른 매력으로는 손님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Q. 믹스커피는 몸에 해롭고 원두커피는 몸에 좋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믹스커피는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과정이 문제죠. 예전에는 프리마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 성분이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믹스커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죠. 그렇다고 원두커피도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카페인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식약청에서는 3~4잔 정도를 적정량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해놓은 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커피를 먹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먹어도 괜찮다 싶고 맛이 궁금하다 싶은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Q. 성장기 청소년에게 커피가 안 좋

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성분 때문인 것 같아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성인에게도 자극적이지만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더 자극적으로 알려져 있죠. 카페인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적당량만 먹으면 자극을 받아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피로감을 잊혀주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에 고등학생 이상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6세 이하의 유아나 반려동물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Q. 하루에 커피를 몇 잔정도 드시는지?

A. 지금은 하루에 9잔정도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마시냐구요? 커피가 기온, 습도에 민감해요.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 1초에 1ml 떨어지게 해야 하는데 비 오는 날에는 입자 조절이 까다로워요. 그 때문에

"바리스타는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결국은 열정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 그것이지요.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더 마시게 됩니다. 똑같은 맛을 뽑아내기 위해 계속 맛을 봐야 해요.

Q. 수상경력이 대단하시다고 들었는데요.

A. 바리스타 대회는 나가지 않고 로스팅 대회만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골든 커피 어워드 에스프레소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고 커피엔티라는 잡지에도 실렸어요. 또 작년 연말 대구 로스팅 챔피언십에서 1등, 3등, 인기상으로 3관왕을 했어요.



대회를 나가는 이유는 현 커피시장은 전문성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오래된 경력보다 대회를 나가 수상하는 것이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라서 안타까워요. 작은 커피숍을 가도 커피 맛이 좋은 곳이 많은데 말이죠.^^

Q. 커피 시장의 추세/유행을 알려주세요.

A. 요즘 제일 유행하는 커피는 기본 메뉴로 가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 방영하던 때에는 비엔나 커피가 유행했었는데 결국에는 기본메뉴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커피 시장의 추세를 보면 개인 커피숍이 각광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각광받고 있어요. 커피하면 쓴 맛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라떼에서는 고소한 맛을 찾고, 라떼아트를 통해 눈으로 즐기는 커피도 찾고요. 아메리카노나 핸드드립 커피에서는 신맛을 즐기기도 해요. 지금은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바리스타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죠?

A. 취미삼아 하기는 힘든 직업이에요. 남들과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된 점이 가맹점이 굉장히 많고 그게 커피시장을 점유했었는데 그로 인해 바리스타의 연령이 젊어요. 제가 유럽 여행을 가서 놀란 점이 있는데요. 커피하면 떠올리는 나라인 이탈리아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의 평균 연령이 50대에요. 그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바리스타도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전문성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성을 키운다면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A. 바리스타는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니저를 할 때 알바생들이 막상 일을 해보더니 힘들어서 다음 날은 안 오는 일이 많았어. 무슨일이든 전문적으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바리스타는 빠지면 매력 있고 재밌는 직업이에요.



▲ 직접 원두를 로스팅 하는 모습



〈진주시 망경동에 '아트빈'이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 평거동에 운영중인 바리스타 전문학원〉



〈윤상규 대표는 오래된 경력보다 대회의 수상경력이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라서 안타깝다고 말한다.〉

커피이름 이 정도는 알자

커피전문점에 들어서면 커피 종류가 메뉴판을 가득 채울 정도로 다양하다.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정도를 제외하면 생소한 이름도 많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어로 '빠르다'는 뜻이다. 잘게 간 커피 원두에 뜨거운 물을 넣고 압력을 높여 짧은 시간에 추출한 것이다. 리스트레토는 가장 진할 때 뽑은 에스프레소를 말하고, 롱고는 추출 시간을 두 배 늘린 것이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 연하게 마시는 커피다. 에스프레소나 드립커피를 주로 마시는 유럽 사람들이 미국식 커피라는 뜻에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붙였다.

드립커피는 원두를 갈아 여과지에 넣고 물을 부어서 내려 마시는 커피를 말한다. 고온에서 압착하는 방식의 에스프레소 보단 연하지만 원두별로 추출 레시피가 다르고 물줄기를 잘 조절해서 내려줘야 하기에 많은 연습과 기술이 필요하다.

카페라떼(café latte)와 카페오레(café au lait)는 각각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로 '우유와 함께 마시는 커피'라는 뜻이다. 내용은 약간 다르다. 카페라떼가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섞는 것과 달리 카페오레는 드립커피에 우유를 섞는다.



바리스타가 되려면?

'바리스타(Barista)'란 이탈리아어로 '바(bar)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족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며 유럽에서는 커피를 비롯해 간단한 샌드위치·파스타 등을 만들어 파는 식당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소개된 것은 12~3년이 넘었다. 이전까지는 커피를 만드는 직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었고 역할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커피 전문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바리스타라는 용어도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바리스타라면 모름지기 커피 생두 고르기부터 향긋한 커피를 찾전에 내리는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스터해야 한다.

따라서 바리스타 교육과정에는 커피의 역사와 품종 등에 대한 기본 이론을 비롯해 생두 관리법, 가공 공정, 커피 콩 볶기(로스팅), 핸드드립(커피 내리기) 등 커피에 대한 전문지식과 커피 만들기 기술 등 소양에 관련한 내용들이 두루 포함된다.

국내에는 아직 바리스타 자격을 인증하는 국가공인자격증 제도가 없으나 민간 차원에서는 몇몇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한국커피협회나 한국능력교육개발원, 한국평생능력개발원 등에서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이전에 바리스타 관련 대학 학과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바리스타 전문 교육회사를 수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정규과정으로는 건국대 커피전문과 과정이 있으며 바리스타 교육업체로는 한국바리스타 트레이닝 시스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대학의 사회교육원, 여성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2~4개월 동안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교육받을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취미나 여가생활 차원의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취재/ 하지영(선명여고2), 김동민(동명고2)기자]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찾아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는 기어이 오고야 말 우리의 미래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2학년 서형진〉

Q.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북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8학번 서형진입니다.

Q.북한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 공부하는 지역학과 분단과 통일에 대해 공부하는 통일학,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Q.북한학과에 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전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사회의 정치 혹은 외교 분야를 이야기할 때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Q.북한학과에 진학하기로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긍정적이었습니다. 저와 잘 어울린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Q.북한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볼 때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요?

—많은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화 가운데서 홀로 폐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경제 기반을 이루어 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재 국가임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많은 부분을 희생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Q.입학 후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통일을 당연시하는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통일 이전의 탈 분단, 그

Q.북한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시 합격생이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북한학과가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내가 이 곳에서 고민하고자 하는, 혹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북한학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어떤 학생들에게 북한학과를 추천하나요?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물론,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을 위한 활동이나 통일 운동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다가올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요.

**북한은 생각보다 기반이 단단한 잠재력 높은 국가.
한반도 평화번영은 청년들에게 더 없는 기회 될 수도...**

리고 통합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식입니다.

Q.북한에 대해 배우는 과정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하나의 지역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거나 어렵게 알던 사실들도 많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Q.북한학과만의 매력포인트가 있나요?

—국내 유일의 학과라는 점에서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과 구성원 간의 관계가 매우 잘 맺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우리가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나요?

—저 역시 아직 공부 중이고,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학과에 오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 더 많



이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생각보다 기반이 단단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은 외부 경제 의존을 줄이고 내수 경제만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실제로 현재까지 유례없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상당 수준의 국가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계층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일부의 시각처럼 당장이라도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는 빈곤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앞으로 북한학과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한마디

—북한학과라는 생소한 이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일의 학과인 만큼 학문적 메리트도 충분하고, 학과 내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역시 흥미로운 내용이 많고, 학과 내 여러 소모임에서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다질 기회도 많습니다. 얻는 것이 아주 많은,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북한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Q.동국대 북한학과에 등급 컷은 어떻게 되나요?

—저의 경우에는 정시 등급 2/3/2/1/1 이었고 추가합격했습니다.



대학 북한학과도 해빙무드

사실상 '북한학과' 학사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은 동국대가 유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지난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북한 관련 학과 경쟁률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체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북한학과를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동국대 북한학 전공의 2019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은 모집정원 5명에 47명이 몰려, 9.40대 1을 기록했다. 전년도(7.00대 1)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2017년 북한학 전공이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개편된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사회교통일외교학부의 정시 경쟁률도 7.68대 1로 전년도(6.60대 1)보다 뛰었다. 최근 5년간 해당 전공의 가장 높은 정시 경쟁률은 6.80대 1(2017년)이었다.

이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수험생들의 대입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이 같은 북한학과의 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2019학년도 동국대 수시 두드림전형에서 북한학과의 경쟁률은 15.00대 1로

전년도 7.88대 1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시 학업능력고사 전형 통일외교안보전공 경쟁률도 14.78대 1로 전년도 10.78대 1보다 대폭 올랐다. 6곳까지 지원서를 쓸 수 있는 수시는 성적에 맞춰 지원하는 정시와 달리 사회적 분위기에 더 많이 좌우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국대는 1994년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북한학과를 개설했다. 이후 많게는 명지대, 관동대 등 4년제 대학 중 6곳에서 북한 관련 학과를 운영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관련 학과들도 잇따라 폐지, 2010년 이후에는 동국대와 고려대 두 곳에서만 북한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북한학으로 개설된 고려대 세종캠퍼스도 2017년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학과명을 개편하면서 사실상 '북한학과'라는 이름을 내걸고 학사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은 현재 동국대가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진전될수록 종전 폐지됐던 북한학과가 부활하거나 관련 전공 개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회 행사〉



〈2015년 화제가 되었던 동국대 축제 북한학과 주점〉



T. 제일삼현명신중앙예고 화이팅

ㅎㅇ 난 존여야.ㅎㅎ 누군지 알겠니?? 니네 탁구 치는데 써보는 거야. 이런 거 처음 써보는데 너네 영광인줄 알아. 사진도 이상한 거 밖에 없어서 부산 간 사진이야. 추석 끝나고 전주 가서 또 찍자.♥ 그때 승주도 꺾끼 쳐야 해. 아 너무 오글거린다. 나 이런 거 못해. 그냥 오래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같은 대학가자!! ㅠ 제일삼현명신중앙예고 화이팅!! 그룹 안녕~

-From. 절예뽕애



T. 안녕 민혁아

나는 진양이고 예비 회장 치군이야~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 돼서 둘 중 한 명이 학교 안 오면 반에서 왕따 될 정도로 둘이 붙어 다녔지. 이제 2학년 때는 그런 일 없게 반 친구 좀 사귀자~ 그리고 민혁아. 탈포에는 검은공이 좋다고~ 내년 생일 때 검은공 듀유 10박스 정도 사줄게.^^ 친구의 정성이니 꼭 다 마시도록~ 만약에 네가 이걸 보는 순간 학교 1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겠지. 탈의실에 있을 테니 그리로 와^^ 하여튼 일 년 동안 많이 고마웠소 매형♡ 우리 이제 가족 될 사 이이니 앞으로도 잘해 보자고...

-From. 조치군



T. 규원이에게

규원아 안녕!!! 나는 너랑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야! 마침 필통으로 이렇게 편지 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한테 써본다. 너는 비록 1년밖에 같은 반을 못했지만 연락하는 지금도 마치 10년을 본 것처럼 익숙해~ 네가 나 놀리고 같이 놀았던 순간도 다 추억이다. 그때 정말 순수하고 좋았는데 ㅠ 이거 읽으면 깜짝놀라겠지?? 나 누군지 잘 못 쳐보길 바라게~ 지금은 우리 서로 다른 학교이지만 종종 만나자!!! 그리고 우리 모두 꿈 이뤘서 행복하게 살자!! 좀 오글거리지만 진심이다♥ 넌 정말 좋은 친구야~그럼 안녕

-From. 익명



T. 자랑스런 어씨가문 차남 태경이에게



태경아 형이다. 똥기지기 같아줬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 입학이네. 중학교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게임 좀 적당히하고 누가 괴롭히면 말해라.. 형이 다 때려 뽕사빠로 간다. 글고 답배피면 죽여 버린다. 형이 화내고 해도 사랑하느거 알지! <키아> 집에서 보자~

-From. 자랑스런 어씨가문 장남 어지호가

T. 주혜 선배님

안녕하세요~ 주혜 선배님!! 1학년 때 처음 만나게 1년 전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네 ㅠ 1년 동안 너랑 놀면서 웃겨서 오죽지킬 뻔 한 적 많았는데 그때마다 서로 조금씩은 진짜로 지린거 다 알아^^ 나랑 같이 놀면서 힘들 때 많았지? ㅠ 앞으로 한 100년만 더 힘들어짐♥ 주혜 사.사.사기꾼 자속아

-From. 한동권



T. 잘생긴 조영주에게

쪼쪼아 내동인이다. 제일에서 공부 이빠이 한다고 들었는데 내도 이빠이 해서 심화반 들어갈꺼데... 손 잡고 들어가자.. 또 내한테 고마 장장대고 좋은 남자를 만나세요, 좋은 여자 있으면 내한테 먼저 소개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오래보자 맹주아~

-From. 이쁜동인이가



T. 삼현인이 된 소민이에게

소민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년째구나~ 처음엔 이름만 아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날 인사하고 지냈지 아냐? ㅋㅋㅋ 같은 반이 되고 나서는 우리 진짜 재밌게 놀거 같다. 삼현여고는 어때? 사실 니가 뿌려워.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맨 날 놀고 시내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못 봐서 너무 슬프다... 사실 곧 너 생일이라서 약간 이벤트로 준비 한거야.ㅎㅎ 감동 노렸다 울어야 해!!! 3월 24일 니생일에는 꼭 만나는 거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연락해.. 사랑한다~ 친구야

-from 박서진



T. 안녕 1반 친구들!



나 1학년 1반 1번 강가은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까먹을 거 같지?? 올 1반, 1년 동안 많이 행복하고 즐거웠어. 항상 활기차게 수업도 잘 듣고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 같이 웃고 울고 하면서 정말 좋은 추억들이 하나씩 쌓여 갔던 거 같아. 모두 2학년이 된 지금, 1학년 1반 교실은 다른 친구들로 채워졌지만 우리 1학년 1반은 언제나 영원한 거 알지?? ㅠ ㅠ 우리 꼭 회식하고 반창회도 하자. 나중에 커서 다들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게! 사랑해♥

-from. 강가은~

T. 1학년2반 귀요미들



우리 일 년 동안 고생 많았어~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좋은 인연 만든 것 같아. 우리 일 년 동안 다사다난했는데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다 ㅎㅎ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ㅋ ㅋ

-From. 강영이가

T. 여어~ 1학년7반

여어~ 다들 잘 사는가~!! 나는 잘 살고 있다. 움 하하~ 내가 누구냐면 바로 1-7을 빛내 쿠티빠띠 부반장 채린이단! 1학년 끝난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보고 싶네 ㅠ ㅠ 이렇게 반 친구들한테 편지 써 본 건 처음이다. 헤헤.. 1학년이 다 끝나고 2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지만 이렇게라도 편지를 쓸 수 있게 돼서 마음이 퐁퐁글 눈물 날라고 하네.. 2학년 가서도 열심히 놀고!! 으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으이!!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 다 이뤄서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자 평생 안 잊을거다 올 1-7 사랑해♥ (참고로 1-7 동창회는 금산임. 반 박은 금산 뒷산에서 받는다.)

-From. 아들이 보고 있나. 만득이 행님이다이.



[취재/ 민세연(선명여고2)기자]



필통 우체국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 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2018년 일팔이들 안녕~

나 누구지 알겠어? 알아볼라고 생각할게. 학기 초에 어색했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고 다 헤어졌네~ 너무 보고 싶을거야. 일학년 팔팔 너무너무 재밌었어. 빨리 성인 돼서 만나자♥♥ 애들이랑 우정해~

-From. 익명의 소영



T.O. 젤이쁘고젤잘놀고젤재밌는제일리들,

내 친구들에게♥

안녕 울 제일들!! 입학하고 신나서 들떠있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우리 벌써 2학년이야. 1학년 정말 신나게 놀았다. 그지!!! 많이 적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쓸게. 입학 전 내 워너비에서 입학 후 청담반 일친구로 시작했던 현주랑, 내가 진 수학 버스 끄겨 탈 수 있도록 도와준 (진)지연아, 2학년 8반에서 1년 동안 재밌게 살아보자구나♥ 언컨티 수업에서 맨날 나랑 수다 떠다 함께 씹 핀잔 듣던 예림이, 대기티 수업에서 셋이서 수다판 벌였던 유경이랑 소연이, 언컨티 수업에서 함께 시끌벅적했던 지연이, (갑)지연이, 해피이, 보검이, 소원아 덕분에 다른 의미로 알찬 방과후시간 보냈던 것 같아 즐거웠어♥

그리고 기요미 은우랑 소연아, 과중은 떨어져 봤자지. 우리 그래도 옆반이야~ 말 안 해도 그때. 알지? 알거라 믿어. ㅎㅎ 급식소 푸드파이터들 고은이랑 경서야 앞으로 도 열심히 우리반의 다이어트하자~ 마지막으로 선유야 너무너무 보고 싶어 조잘대던 니 모습이 그리다. 그리고 인사하기 게임으로 만들어진 일사 육총사 나영이 민아 채경이 지현이 (한지현이) 모두 1년 동안 즐거웠고 소원아 희주야 우리 이제 공부 좀 하자. ㅋ ㅋ ㅋ ㅋ ♥

제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밖에서나 개인적으로나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힘들었던 일들은 다 잊고 즐겁고 재밌었던 일들만 좋은 추억으로 평생 가지고 갈게. 다들 그렇잖아? 제일들 뿐만 아니라 삼현에 있는 정원아 나 이사갈 때까지만 참아. 맨날 보는 날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병가영!! 나 자주 못 본다고 울지 말고~ 나랑 만날 때만큼은 돈 비 업셋 비 해피♥ 이말 하니까 송은서 생각난다. 우리 제대로 된 첫 만남부터가 생일이어서 더 친근했던 ㅋ ㅋ ♥

여기 언급 못한 내 친구들 모두모두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짧게 쓴다고 형설수술 한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 2학년이라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커져서 1학년 때 만큼 많이 놀진 못하겠지만 놀 때 또 누구보다도 신나게 놀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친구들~ 오글거려서 못 쓰겠네 요거. ㅎㅎ 2학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3학년 모두 우리가 젤 행복하게 보내자 사랑해 애들이 성 공하자♥♥

-From. 너네들의 영주애두애주또뽕뽕

T.O. 문유태 ㅋ

유태짱 ㅎㅎ♥ 아옴 똥재 님이다.

천천히 시작하 우리 인연 ㅎㅎ 정말 벌써 안지 10년 짜야. 정말 지겹다. 우리 방학이 너무 길어서 진짜 방학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점심때만 되면 피시방가서 밥 먹고 게임하고 나오면 밤이고, 자괴감 드네. 그래도 좀 뿌듯함. 내가 니 롤 버스 태워서 티어 올려준다 이가. ㅋ

유태 나 잔지하게 커서 뭐 먹고 살지?? ㅠ ㅠ 나랑 같이 동문사 차리는 게 굿 초이스?? 부고에서 공부나 할 걸 편입 후회도 되네. 그리고 진짜 친구로서 부탁할 거 있어. 나 여쭙히한테 장가 갈려고, 이어줄거지??

유태 한 10년 있으면 처남이라 불러줄게. 나 때문에 항상 고생하는 거 아는데 앞으로 좀 더 고생해 계속 고생 시킬 거니까 그리고 똥땀이 좀 관리해줘. 10년이 100년 될 동안 오래 괴롭혀줄게 사랑해 유태♥♥ 아, 그리고 혜윤이랑 다은이 착하게 살고 있지? 내가 민호



랑 교육을 안 하니깐 잘 모르겠네 구민호 전교 꼴찌 쪽박 린다. 진짜 연락해 민호.

-From. 존잘 유승재 ㅋ

T.O. 승훈이



승훈아~ 안녕. 우리가 알게 된지도 벌써 7년째네... 고등학교1학년 같은 반 배정돼서 엄청 설레고 신났었는데 벌써 이렇게 2학년이네... 한학년 동안 반의 반장으로써 책임감 있게 우리 이끌어 준 것도 고맙고 항상 재밌는 모습으로 애들 기분도 업시켜줘서 고마워~ 2학년 다른 반이 됐지만 많이 놀 수 있으면 좋겠고 2학년 가서도 그 하 이텐션 잃어 버리지 말고~

-From. 강주환

T.O. 성근♥

작년 여름 때부터 사귀어서 반 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잘 사귀고 있네... 아 좀 오글거려서 편 말 써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엄청 싸우고 해도 아직까지도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니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앞으로 내 투정 잘 받아주세요♥사랑해 오빠 ㅎㅎ ㅎㅎ ㅎㅎ

-From. 정송화



T.O. 1-4 공주들♥

1년 동안 나네랑 같은 반 되서 너무 좋았음... 3년 내내 1학년 때 반 그 대로 올라가고 싶지만 지금은 반이 다 떨어져서 너무 아쉽네. 그래도 시험 끝나면 모여서 놀러 땡가자. 까페 이리데 말고 배 뽕뽕하게 따음껏 채울 수 있는 곳으로... ㄱ ㄱ 다들 친구 없으면 찾아와. 같이 밥은 먹어줄게. 할 말 없으니 그냥 그만 쓸게 알라뽕 꿀꿀이들♥

-From. ?누굴게?



T.O. 현현빈

아~안녕 현현빈 친구들~ 큰 니네한테 이런 거 쓰려니까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네. 서로 잡힐 하나도 없던 감다 박정빈 친해진 것도 웃기네... 그렇게 친해진 애들이 성격 잘 맞아서 계속 친구하는 것도 신기하고 좋아~ 진짜 오글거려서 못 쓰겠는데. 진짜 좋아~ 예전에 친구가 재산은 뭐가 재산이야 돈이 재산이지 그랬었는데 진짜 믿음직한 친구 있는게 더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 애인은 없이 살아도 니네는 아니라고 현현빈은 싸우지 않고 천년만년 친구하기 싸우면 죽음이야. 사랑해♥♥

-From. 큐티뽕뽕바띠 셴공주



T.O.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짱짱인 나영이



나영아 님 빨리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해야 돼. 이과에서 버틸 수 있겠나. ㅠ 중간고사 치면 후회할 거다. 빨리 우리 반으로 와~ 생일 미리 축하해. 내가 제일 축하한다. 감동 이제? 이게 3월 초에 받으니까 더 빨리 보겠네. 3월 16일에 딱 받아야 되는데 3월 16일에 다들 나영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용. 그리고 나영이는 초록색을 제일 좋아해요. 왜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요. 다들 나영이 생일 때 떡볶이 주면 완전 좋아할걸요. 많이 축하해줘요. 김나영 생일 축하해 사랑해.

-From. 류태경

T.O. 작년 제일여고 1학년 8반 친구들에게

반가워요. 친구들~ 우리 반 필통 나가자고 했었는데 못나가서 아쉽네여. ㅠ ㅠ 그 대신 제가 편지를 쓰게 됐어요. 부끄러워 ㅎㅎ 인사는 다 나눴으니 다들 각자 반에서 2학년 잘 보내시고 반 친구들이 여러분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마디로 소개해 줄게요. 다들 각반 인싸가 되어보아요~>>>

뽕뽕러지는 민서, 성격 좋은 서영이, 재미만점 서진이, 천사 윤진이, 정의의 소녀 허원이, 엉뚱한 지영이, 인기짱 유빈이, 패셔너블한 민지, 발랄한 희영이, 말수 없는 영현이, 아재개그 희진이, 독서왕 지영이, 간지랄칠 지우, 우리 반 꿀통 담은이, 뽕뽕이 서현이, 그림전채 선진이, 분위기 메이커 세은이, 세심착한 지은이, 말수 없는 매력기 넘치는 나윤이, 다양한 동물을 닮은 다은이, 우리반 귀요미 송은이, 착하지만 가끔 무서운 수연이, 정말 정직한 예송이까지 다들 잘 지내시고 꼭 행복하게 사세요.♥♥

-From. 친구들에게 보내는~



[취재/ 민세연(선명여고2)기자]

진주환경운동연합 청소년환경동아리 [푸른마당] 모집



- 대상 : 15세~18세 환경을 아끼는 청소년
- 모집인원 : 15명 내외
- 활동 : 매월 1회, 둘째주 토요일 2시
생활환경 모니터링 “미세먼지 굿바이, 내일은 맑음”
-미세먼지 측정 모니터링 및 측정기는 어디에?, 천연생활재 만들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플라스틱 없이 살기 프로젝트
-기후변화에너지 체험
-토론이꿈이 교육 등
- 회비 : 연 3만원
- 모집기간 : 1차, 3월 23일(토), 이후에는 전화 문의주세요
- 면접 : 추후공지 합니다.
- 문의 : ☎ 747-3800
- 찾아오는길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 맞은편 스타벅스 7층

※이 점 :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 봉사실적 부여가능
꾸준한 활동으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 제작, 입시 및 취업에 도움



경남 진주시 동진로(칠암동 490-15)
TEL. 055) 747-3800, FAX. 055) 747-5882
홈페이지 jinju.kte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ktemj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네모네모로직 응모하기>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특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9년 4월 14일(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시분들 중 추첨을 통해 32분을 추첨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30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변동가능) 당첨되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칸이 있는 숫자퍼즐로, 왼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통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은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1.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2.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3.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 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	학교 ()	학년 ()	반 ()	이름 ()
7	10	4	2	2
3	3	1	1	1
1	1	1	1	1
12				
5	4			
2	3	4		
2	2	5	5	
3	13	2		
2	5	4	2	
2	4	6	2	
2	3	3	2	2
2	7	3	2	
2	5	4	2	
2	13	2		
5	2			
4	3			
15				
10				
7	4	3	2	
2	4	4	2	
7	4	7		
2	4	2	4	
7	4	2	3	

연락주세요

“지난 필통네모로직 당첨자분들 중에서 문화상품권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필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당첨된 분은 학생기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통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디자인의 모든 것! 노는아이!

TALK minijebi

디자인 컨셉에서부터 견적까지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PLAYi
PLAY/COMMUNICATION
플레이아이커뮤니케이션(노는아이)

010.9342.2580
lovepeople@daum.net

포스터 / 전단 / 명화 / 스티커 / 리플렛 / 팸플렛 / 북투 / 현수막 / 배너 / 쿠폰 / 메뉴판 / 카판 / 카페 / 블로그 / 홈페이지 디자인 / 로고제작(CI, BI) / 파워포인트제작



이영균 이영란 이영주 이원준 이윤구 이윤희 이우기 이육현 이우정 이윤자 이윤자 이윤경 이윤희 이윤경 이윤영 이윤영 이윤주 이윤화 이인자 이재석 이재승 이재현 이정숙 이정숙 이정현 이정현 이정희 이종원 이주미 이진희 이창욱
이충석 이한진 이혜숙 이향숙 이연미 이혜영 임경설 임경숙 임미경 임병선 임병재 임 석 임소정 임수연 임재광 임재하 전상훈 정경숙 정고은 정귀란 정기설 정기룡 정길란 정동근 정명고 정미란 정미숙 정미영 정민경 정문근
정석희 정성명 정세윤 정승민 정승환 정연근 정연호 정영문 정우영 정은영 정은택 정의환 정재은 정정환 정준근 정준호 정주용 정창고 정철호 정환용 정행정 정변태 정명숙 제주은 조경민 조남식 조미란 조문준 조성환 조연향
조영주 조우영 조일희 조은수 조은희 조일수 조재선 조재우 조진구 조한진 조현규 조현우 조혜정 주종만 주선경 주정희 지종근 지미경 진애희 진옥순 진재필 진혜숙 차명지 차영석 차은아 천규영 천수인 천윤권 최경미 최경희 최 미
최상일 최선미 최성재 최성환 최연주 최유통 최윤호 최정민 최지원 최진철 최현우 최형식 추수현 탁정순 하기용 하병철 하유지 하지선 하혜경 한기민 한순필 한영호 하귀용 허문룡 허윤정 허정림 홍선인 황규민 황성수 황수영 황진희



한살림
한살림 경남은
필통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후원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필통지정 배부처 | 필통은 진주시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부 됩니다.

<신안-평거동> 아이쿱생협 신평점, 진주문고, 행복중심생협, 여성민우회, 탐마트서점(D-BOX), 형평기념사업회 <상봉동> 문화당서점, 형설서점 <시내권> 아름다운가게, 대양서점, YMCA, 서경방송, 다원, 축항 <칠암-강남동> 커피포트, 등촌서점, 안카페, 몽글, 단디커피, 모두
의아지트, 소문난서점 <도동> 진양서점, YMCA, 달팽이도서관, 드림문고, 학문서점, 마하도서관 <호탄동>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